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추진방안 연구

2017. 12.

■ 책임연구 Ⅱ

박 지 훈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엄 광 현 (한남대학교 예술문화학과)

■ 공동연구 Ⅱ

윤 일 영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이 수 철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손 동 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이 동 준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겸임교수)

한 혜 경 (문화콘텐츠교육연구소 담 대표)

■ 연구보조 Ⅱ

조 혜 정(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목차

I. 서론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과 목적	1
3. 기대효과	1
4. 연구방법 및 내용	1
II. 성남문화재단의 현황 및 SWOT 분석	3
1. 성남시 문화예술정책과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	3
2. 국내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	7
3. 국내 및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파악과 현황	16
4.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한 SWOT 분석	25
III. 국내외 문화예술지원정책 현황분석 및 정책점 시사점	28
1.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시사점	28
2. 일본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시사점	45
3. 한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시사점	65
IV.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제언	82
1.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	82
2.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핵심과제	83
3.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모델 개발을 위한 발전계획과 추진방안	85
4.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제언	93
<참고문헌>	95

I. 서론

1. 연구개요

- ◎ 연구 과제명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추진방안
- ◎ 발 주 기 관 : 성남문화재단
- ◎ 연 구 진 : 엄광현, 이동준, 한혜경, 손동기, 조혜정
- ◎ 연 구 기 간 : 2017.9.25. ~ 12.23. (3개월간)

2. 연구배경과 목적

-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수립을 통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전략 및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 구축
- ◎ 성남문화재단의 차별화된 문화예술지원정책 방향성 설정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지원기반 구축 및 창작을 비롯한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전략 마련

3. 기대효과

- ◎ 향후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단·중·장기 문화예술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과 방향성 설정을 통한 차별화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정책 및 지원방안 모색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자원개발과 인적 자원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을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자료로 활용

4.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성남시
- 내용적 범위
 -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정책 분석 및 지원사업 방향성 설정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이슈 분석
 - 국내외 문화예술지원정책 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추진 모델 제시

2)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자료 조사, 수집, 분석 등을 통한 문헌연구
- WEB과 문헌자료, 연구보고서, 저서 등을 통한 국내외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실태 및 현황에 관한 조사와 분석
- 성남문화재단 내부 자료 수집과 분석
- 성남문화재단 내부 관계자 인터뷰와 외부 전문가, 예술가 등의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이를 통한 연구 방향성 도출

3) 연구내용

- 성남문화재단의 SWOT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지원정책 도입근거 및 필요성 타진과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이슈 도출
- 국내 지자체의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지원체계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방향성과 전략체계 구축
- 해외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자료 조사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단기적 관점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 모델 제시
- 내·외부 관계자 의견 수렴과 인터뷰 결과를 반영한 방향성 설정 및 정책적 제언 제시

4) 인터뷰 참가자 명단 및 진행 과정

	인터뷰 진행 일시	이름	소속
1	2017.10.11	이영진	성남문화재단
2		오희영	
3		고성영	
4		박지훈	
5		박동기	
6		이상훈	
7	2017.10.31	최보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	2017.11.1	박승예	성남신흥공공예술창작소
9	2017.11.1	권신	경기문화재단
10	2017.11.2	조현기	성남시립국악단
9	2017.11.2	김혜숙	춤추는여자들
13	2017.11.3	전경호	수원문화재단
12	2017.11.4	윤용훈	성남 예술강사
14	2017.11.5	변상형	한남대학교
15	2017.11.6	양현미	상명대학교
16	2017.11.8	황정주	문화협동조합

*) 인터뷰 자료는 개인적 의견 등을 고려, 성남문화재단과 협의 하에 비공개함

Ⅱ. 성남문화재단의 현황 및 SWOT 분석

1. 성남시 문화예술정책과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

◎ 국내외 예술지원정책의 동향과 특징

- 인간의 감각 기관을 근간으로 분류, 규정되어 발전해 온 근·현대의 ‘예술’ 개념에서 벗어나 장르간의 혼용과 융합적 실험을 통하여 동시대 ‘예술’ 개념은 빠르게 진화하는 중임
- 이에 따른 결과로서 동시대 문화예술은 총체 예술적 경향을 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그간의 시각과 개념적 틀거리에 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현재, 동시대 문화예술 패러다임은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 문화예술의 패러다임 변동과 더불어 그간 고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던 문화예술인에 대한 개념 역시 변동 중임
- 그간 문화예술 패러다임과 틀거리의 외곽에 존재하던 창조산업, 문화산업, 대중문화, 문화예술교육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과 재원이 문화예술 혹은 문화예술인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품제작을 기반으로 정의되던 창작의 개념 역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해외는 물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문화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 등이 미래의 유망산업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와 인적 자원 등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음
- 개인적인 창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바라다보던 기존의 시각에도 변동이 일고 있음
-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에 파급하는 효과적 측면에 주목하여 지역의 문화 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자 등을 문화예술인으로 재인식하기 시작함
- 동시에 이들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하고 꾀하는 내발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각각의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국 혹은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과 시책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질 높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사업전략을 다각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는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성남시의 문화예술정책

- 성남시에서는 2014년,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발전 발전 및 진흥과 관련된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음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성남의 미래 비전상으로 제시한 ‘열린도시’, ‘안심·건강도시’ 항목에서는 시민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창의형 인재양성과 문화도시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활력도시’ 항목에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과제와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표 1] <성남시 도시 미래상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방향과 추진사업>

구분	정책방향	사업과제	사업내용
활력 도시	창의형 인재양성 및 문화도시 구현	아트팩토리 및 문화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쇠퇴하는 본시가지의 비어있는 상가를 문화예술인들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고 입주한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 공연, 전시 등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본시가지의 문화적 활력을 높임 - 복합 레지던스형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공공디자인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지역주민의 장으로 활용 - 상가지역의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 문화예술인 거리의 지정 및 홍보 - 문화예술인의 의무적 시민 예술교육 및 공연, 전시 -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판매 및 공연 등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적 지역재생사업으로 활용

(자료 출처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2014, 성남시, 부분 발췌)

-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문화자원 창조가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에 주목,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축제와 현대예술, 공연예술,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예술자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새로운 창조산업의 근거로 활용되는 ‘문화도시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도 함
- 이와 함께 2015년에는 <성남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계획하며 성남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세 중심축 중 하나를 예술가로 설정하고 성남의 생활문화예술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도 중요하지만 예술가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음
- <성남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에서는 전략방향으로 ‘성남의 지역밀착형 예술생태계 강화와 생활예술의 활성화’를 설계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성남 거주 예술인의 창작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지역 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정책

-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006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만들기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3단계로 구성된 문화예술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 3단계에 해당하는 20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화발전 3단계 기본계획을 2013년 수정, 보완하여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방안(이하,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 계획하였음
- 여기서 기존의 중단사업과 신규사업 등을 정리, 보완하여 3단계 7개년의 추진과제를 새롭게 구축하였는데, 성남문화재단의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는 차별화된 ‘커뮤니티 아트’를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과 목표 및 과제를 제시함

[표 2]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방향, 목표 및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문화예술지원 고유 영역 및 성격 정립 - 예술주체와 참여주체의 동거 전략 수립 - 커뮤니티 아티스트의 전략적 육성
목 표	공공영역으로서의 커뮤니티 아트 지원과 육성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아트 중점 지원 - 커뮤니티 아트 참여 단체와 예술가 발굴 - 커뮤니티 아트 참여 단체 및 예술가 역량 강화 - 커뮤니티 아트 지원체계의 안정화 모델 구축

(자료 출처 :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중장기 발전방안, 2013, 성남문화재단, 부분 발췌)

- 뿐만 아니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실행방안도 함께 수립되었는데, 일반지원사업과 기획지원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기획지원사업에는 상생협력지원사업, 심사관참여지원제도, 모니터링사업, 문화기획 아카데미사업(가칭), 커뮤니티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세부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

◎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과 현황

- 성남문화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경기문화재단과의 매칭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2014년부터 상기의 지원사업을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중장기 발전방안>에 근거, 정비한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2014~2106년 성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내용과 실적

구 분			내 용	지원건수 (신청건수)		
				'14	'15	'16
문화 예술 지원 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 젝트지원 사업	일반 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예술프로젝트	10 (27)	9 (14)	9 (23)
		상생협력 지원사업	단체 간 상호 보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이슈를 해결하고 지역과 단체가 상생 발전하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3(5)	2(5)	1(6)
	문화기획인력 양성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 기획력 전문화 및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1(2)	1(1)	1(1)
			커뮤니티로 도시문화를 만드는 청년 캠프사업	-	1(2)	1(1)
청년문화 프로젝트			청년 예술가 및 기획자, 지역의 청년문화 인력을 발굴, 양성을 통해 도시문화를 만드는 프로젝트 지원	-	4(9)	5(9)
공공예술프로젝트지원			일상공간을 예술적 상상으로 바꾸는 공공예술프로젝트	-	-	1(3)

- 2017년,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새롭게 정비된 지원사업을 성남문화재단은 현재,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동시에 순수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성남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 2017년 성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실적

구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문화역량성장프로젝트		청년문화 프로젝트	합계
		문화기획인력성장	청년캠프		
지원단체	33	2	2	9	46
선정단체	8	1	0	6	16

[표 5] 2017년 성남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내용과 실적

구분	사업용	지원 단체	선정 단체
창작활동지원	극예술, 무용, 클래식,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신규창작활동 지원	4	2
청년프로젝트	청년 예술단체의 극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지원	5	4
문화예술단체 사업비지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단체 사업비 지원	10	3

- 특히 <성남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경우, 3단계(3개년) 사업으로 계획, 시행되는 지속사업으로 수립되어 주로 극예술과 무용, 음악, 클래식 등과 같은 공연, 무대예술과 청년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맞춰 시행된 점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음

2. 국내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

-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경기도의 각 지역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과 세부사업이 있는 시군은 29개 시군이며 각 지역별 상황을 알아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 경기도 각 시군의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세부사업 내용

시군	세 부 내 용
수원시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 민간예술단체 육성·지원
부천시	생활문화예술진흥, 부천 아트밸리 운영, 만화 창조기업 및 전문인력 양성, 부천지역작가 문학 코너 조성,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만화나눔사업, 오정레포츨센터의 친숙한 문화·체육 공간 프로젝트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시립예술단 브랜드 구축 강화, 품격 있는 (우수)공연 추진·운영, 문화예술 보조사업 평가시스템 추진
김포시	김포 아트홀 운영 활성화, 김포 예술제 운영, 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지원,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사립 미술관/박물관 지원
이천시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확대 개최, 서희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이천 아트홀 문화나눔 사업, 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
과천시	시민이 행복한 예술공감도시(지역 예술인 및 단체 육성·지원을 통한 공연예술 진흥, 공연예술 수준 향상 등), 온 가족이 즐기는 가족여가 문화프로그램 확대·참여,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및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 확대, 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강화, 국내외 문화행사의 유치
양주시	찾아가는 문화힐링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수준 높은 시립예술단 운영, 양주창작 스튜디오 <장흥조각레지던스>, <777레지던스> 운영, 박물관 기획전시 및 체험교육 실시, 박물관 문화상품 제작
하남시	문화예술단체(기관) 지원 및 육성,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
동두천시	차별화된 공연예술의 활성화,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문화기반시설 건립, 무대공연 및 문화행사 지원, 저소득층 문화 향수권 보장, 지역 대중문화·예술 진흥 지원
가평군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지원,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지원,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행사 지원
오산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문화사업 추진,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과 시민주체형 행사 개최, 각종 소공연장 등 문화공간 조성

(자료 출처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경기문화재단, 2014, 부분 발췌)

- 이하에서는 경기도 소재의 주요 기초지자체 문화재단과 전국의 대표적인 지자체 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1)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표 7] 수원문화재단의 2017 수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구분	세부 내용	
창작팀 문화예술 지원사업	수원문화발전기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한 기초예술 진흥을 꾀하는 공모지원사업 - 지역문화발전과 관련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수원의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활동 등과 관련한 사업,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곡, 새로운 연출, 안무, 신작 전시회 등 신규창작 결과물의 발표와 관련된 사업 등에 한정함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 등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예술을 확장하는 커뮤니티 아트와 관련된 사업에 지원 - 동네와 마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 예술프로젝트, 동네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 등에 경기문화재단과 매칭으로 진행하는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우리동네 라이브러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단체 및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고취를 위해 그간 활동한 창작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하고 동네와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지역사회 속에 예술이 흡수되고 파급되는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 - 수원시에서 10년 이상 창작/기획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과 단체에 지원 -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카이브 문화예술 기획활동에 지원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수원문화자원 발굴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선도할 유망예술가를 발굴, 지원하여 수원 문화예술의 창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유망예술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신작 제작 및 실연 활동을 1년차와 2년차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 - 연령과 출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최근 2년간 1회 이상 공연, 전시 개최 및 3회 이상 예술가로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에 참가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 공연분야 중 연극, 뮤지컬, 기악, 시각분야 중 영상, 조소, 평면, 디자인 등 장르 우대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 활동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생활예술인(단체)와 전문 예술인(단체) 모두 지원가능하며 지원부문은 연극, 무용, 다원예술, 음악, 전통예술, 시각, 문학 등으로 하고 있음 - 수원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수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예술인과 지원 사업 활동 시 수원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예술인 또는 단체에게도 개방되어 있음
시민문화팀 문화예술지 원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의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공모, 지원하는 사업임 - 단체 및 대표의 주소가 수원지역인 전문 문화예술단체와 아마추어 단체, 개인 등에게 지원되고 있음
예술교육팀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별 균등한 예술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 수원시 관내 기관 및 학교, 비영리 시설 등 거점공간에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 및 예술강사를 지원대상으로 함
	문화예술교육 학습개발연구모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 관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리서치, 연구 등 실태조사 및 신규 프로그램 등 3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예술강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학습활동과 연구모임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자료 출처 : 2017 수원문화예술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 수원문화재단, 2017)

2) 부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표 8] 부천문화재단 지원사업의 프로그램과 내용

사업 및 사업내용			복합	민간	거주	시각	인문학	생활문화	미디어
예술 지원 사업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와 경기문화재단의 기금 매칭으로 운영되는 사업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활동과 지역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프로젝트를 지원 - 부천시는 물론 경기도 소재(거주)한 예술가에게도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	●	●	●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 기획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와 경기문화재단의 기금 매칭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 - 커뮤니티 아트와 공공미술 분야의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사업 - 부천 소재(거주)하는 단체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	●			
	예술가지원 사업 - 청년예술가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작가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작품기획-창작-유통-실연 등 전 단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임 - 기존 장르별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나 확장된 표현 방법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기대하고자 음악, 시각, 스토리메이킹 분야를 특화지원으로 마련된 사업임 - 창작에 필요한 장소, 인력 등을 지원하고 집약적인 작품 실연기간을 지정, 운영하며 선정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 매칭 지원 		●	●	●			
예술 지원 사업	부천 신인문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의 유망한 신진작가를 발굴하여 부천을 기반으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지원자는 사업 - 등단 3년 이내의 신인작가 및 문학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며 부천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에 자격을 부여함 		●					
	생활문화 활동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단위의 문화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문화권리를 신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발굴과 성장을 통한 일상 속 문화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생활 문화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 						●	

사업 및 사업내용			복합	문화	공연	시각	인력양성	생활문화	미디어
공간 지원 사업	무대기술 지원사업 - 찾아가는 무대이야기	- 부천시역 내 공연시설을 갖춘 기관을 방문하여 공연시설을 점검하고 공연시설 최적화를 위한 기술 자문과 시설운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부천공연 예술연습 공간 지원사업	- 부천시민회관 지하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을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			●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 컬처스터디 숍	- 시민문화 매개자를 발굴하고 지역문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3인 이상의 학습공동체 모임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 미디어 교육 지원사업	- 장애청소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습모임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교사를 중심 으로 구성된 최소 3인의 연구모임 및 자율학습 모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 미디어를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나눔 사업 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연도별 특화, 집중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 교육+상영사업 등 미디어를 연계한 마을사업 으로서, 자체예산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 하여 운영하는 사업							●
	오감동상영 지원사업	- 지역에서 독립·소수·예술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모임을 지원하여 지역영상문화 거점을 발굴 하고 지역상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기획된 사업 - 상영 멘토 지원을 통해 스스로 기획부터 상영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							●

(자료 출처 : 2017 부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안내, 부천문화재단, 2017)

3) 익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표 9] 익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프로그램과 내용

구분	사업 및 세부내용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다이나믹익 산아티스트 지원사업	예술가 및 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 지원을 통한 창작 역량강화 및 발표를 활성화하는 사업 -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학술연구를 지원대상으로 함 - 익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DB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1년 이상 익산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경력을 지닌 문화예술인과 기획자 및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함
		지역문화역사콘텐츠 활용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 및 개발을 통해 지역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확장하고자 기획된 지원사업 - 장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함 - 익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DB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1년 이상 익산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경력을 지닌 문화예술인과 기획자 및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함
		우수프로젝트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 기획의 문화예술 우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 문화예술교육, 문화 예술 활동에 지원
		신진예술가창작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 구분 없이 신진예술가를 발굴, 육성하여 신진예술가의 활동 기반구축 및 창작활동 기회를 조성하고자 기획된 사업 - 창작결과물에 대한 전시 및 발표회를 필수적으로 개최 하여야 함 - 익산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 40세 이하의 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지역문화행사활성화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축제 및 지역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 창출 및 마케팅, 활성화 등을 지원 - 익산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마을 단위 개별 콘텐츠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우수프로그램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문화나눔메세나장려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부를 활용한 문화나눔 기회 제공 - 매칭펀드를 활용한 익산 문화예술인 지원 및 시민향유권 확대 - 예술 관련 대학생과 예술인과의 멘토링 시스템 구축으로 대학생들이 예술인과의 관계 형성 도모

구분	사업 및 세부내용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교류사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질적 도모 향상 - 교류를 통한 지역예술인의 역할 확대 및 익산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 익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표 문화예술 분야의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선진지역 답사 및 창작활동에 기여 - 시각, 공연 및 음악교류, 익산시민과 문인들이 함께하는 문학 기행 - 교류지원 공모를 통해 단체모집, 교류지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행사실비성 교류지원금 지원
	근대박물관춘포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포역의 활용을 높이고 문화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계층별 수요에 맞는 특화된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민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익산서동축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의 대표축제로 역사축제, 시민화합축제로 차별화된 지역 축제콘텐츠 구축 -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유무형의 익산문화자원을 활용한 미래가치형 축제로 이천년 역사고도 지역브랜드 확립과 외부 관람객 유치로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 확립
	솜리골작은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등 청년 동아리 대상 지원사업 - 청년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를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술가와 지역민의 만남을 통해 지역과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및 전시 운영, 지역 예술가 및 주민에게 전시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인력 채용 및 양성
	청년<누리알찬>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등 청년 동아리 대상 지원사업 - 청년들이 자발적이고 종합적인 동아리활동을 통해 다양한 특기를 계발하고 체험 - 전통문화, 음악/댄스, 창작/미술, 기타 분야에서 총 12개 우수 동아리 선정, 지원

(자료 출처 : 익산문화재단 홈페이지)

4) 대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표 10] 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의 프로그램과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역문화 예술 창작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창작진흥 사업	- 지역예술단체의 창작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지원	공연, 시각, 문학 분야
			- 지역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 (정기행사 포함)	생활예술 분야
		해외활동 지원사업	- 예술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예술행사(공연·전시) 참가 지원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해외 관련 기관·단체의 초청장 필수 제출	문화예술 전 분야
			- 해외단체와의 교류증진을 위한 단체 간 예술교류행사 (공연·전시) 지원 - 2년간 지속 가능	
		학술진흥 사업	- 문화예술 콘텐츠의 정보화 및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보존, 세미나, 정기간행물 등에 지원하는 학술진흥사업	문화예술 전 분야
	기초예술 진흥사업	집중기획 지원사업	- 대구 대표 콘텐츠 발굴을 위한 대형사업 지원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단일 사업으로 대구시(기관),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	공연, 시각 분야
		우수기획 지원사업	- 전년도 사업 중 레퍼터리화를 위한 재공연 및 전시사업 지원 -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예술단체와 전년도 기초예술 진흥 및 공연활동지원사업 선정 단체 및 작품에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	- 신진예술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재정, 예술활동, 홍보 등을 지원하는 펠로우십 지원제도 - 6개 장르별로 24명 이내 선정	개인
	공연활동지원사업		-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창작의욕 고취와 질적 수준 향상 등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 분야
지역밀착형 지원사업	연극/뮤지컬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대본공모전 선정작을 대상으로 지역단체의 연극·뮤지컬 제작지원 공모사업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뮤지컬·연극 전문단체	연극·뮤지컬 분야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	- 국악 상설공연 마련으로 국악의 저변 확대 및 창작 활성화	전통예술 분야	
지역밀착형 지원사업	예술인커리어개발지원 사업	- 예술인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교육비 지원 - 개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 - 문화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대상에 포함	문화예술 전 분야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공공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협력과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 - 대구시에 소재한 공공공연장과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지역공연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함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분야

(자료 출처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5)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표 11]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프로그램과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레지던스운영 활성화지원사업이 통합된 사업 - 기초예술지원영역과 기획특화지원영역으로 구분, 지역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순수 예술창작활동을지원 - 기초예술지원영역에는 문학, 미술, 사진, 영상, 음악, 연극, 무용, 전통, 국악 이 포함되어 있음 - 기획특화지원영역에는 올해의 문학, 다원예술, 공공예술기획, 창작공간 활성화지원, 국제예술교류, 브랜드콘텐츠제작, 청년연출가작품제작지원, 거리 예술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음 - 1단계(기초지원단계), 2단계(창의적육성단계), 3단계(가치확산단계)로 구성, 지원분야를 구분, 지원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업체의 지정 기부금액을 매칭하여 운영하는 지원사업 - 기업체와 문화예술단체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메세나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부산의 보조금과 기업체가 기탁한 기부금을 매칭 하여 지역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
청년문화집중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의 이탈을 줄이고 청년문화예술의 선진모델을 구축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 인디문화 활성화, 젊은 예술가 해외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공공공연장이 상주단체를 통해 수준 높은 공연과 공공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연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상주단체는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공연단체를 매칭하여 지원
문화예술분야연구창작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발전에 공헌하여 부산시문학상을 수상한 문화예술가의 연구 창작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문화포럼개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회에서 개최하는 문화포럼 개최 비용 지원을 통하여 문예창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학계 권위자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을 통해 부산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업
부산원로예술인창작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로예술인과 후배예술인의 협업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 - 최종적으로 전시를 통해 공개, 발표하는 사업
전자아카이브구축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문화예술작품의 현황을 수집, 정리하고 지속 적인 정보축적을 통해 지역문화예술기록 보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 - 부산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문화예술작품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사용자 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보제공 및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자료 출처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6)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표 12]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의 프로그램과 내용

구분	세부내용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의적 활동을 위한 안정적 지원구조를 마련하고자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 - 출판,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분야로 나뉘 있으며 문학, 비문학, 전시, 연극, 뮤지컬, 콘서트, 창극, 국악 등의 공연, 앨범제작, 음악, 무용, 전통예술 관련 축제형 사업에 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년지원을 통한 우수예술프로그램 창작기반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 -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분야의 인천 소재 공공공연장과 창작 및 공연활동을 하는 공연 예술단체를 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작-소통-향유 시스템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가 및 기획자를 발굴하고 예술인 간 소통 증진 및 예술인 지역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 및 복합장르 중심으로 레지던스 운영목적이 뚜렷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 인천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도 지원할 수 있으나, 참여예술가(단체)의 50% 이상을 인천 연고 예술가로 구성하여야 함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단체의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연수, 주요행사 참가 프로그램 등에 지원 -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과 관련된 각종 실무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제휴하여 시행하는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도 지원
국제교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 주요행사 참가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의 소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 3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음
인천 미술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고의 작가 작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미술작품을 대여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인천 미술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 - 인천미술은행갤러리를 관련기관으로 운영
우현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현 고유섭을 기념하여 인천문화재단이 제정한 시상제도 - 한국의 미학 및 미술사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업적을 낸 인사 또는 단체를 시상, 지원하는 우현학술상과 인천의 문화예술 창작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시상, 지원하는 우현예술상으로 구분, 운영
문화예술단체 공간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연예술진흥을 위해 창작 중심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제공하는 지원제도이며 유료로 운영되고 있음

(자료 출처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 시사점

- 국내의 대표적인 주요 지자체 문화재단들에서는 커뮤니티 아트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문화예술활동 및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역의 순수(혹은 기초)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다각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를 꾀하는 차별화된 사업을 축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있음
-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과 만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분야들을 선별, 특화전략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반면, 대구문화재단에서는 뮤지컬과 연극 분야의 콘텐츠를, 익산문화재단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의 문화역사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활동을 지역의 특성과 밀착시키고 이를 통해 차별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청년세대를 비롯하여 신진작가, 유망작가 발굴에도 역점을 두는 사업을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부산문화재단은 청년세대 인디문화 문화예술인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손꼽아 볼 수 있음
- 특히 부산의 경우, 청년문화의 지속적인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청년문화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외에도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대외적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창작활동과 직결되는 직접지원방식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유통과 홍보, 교육, 그리고 전시 및 공연을 위한 공간 제공 등 간접지원에도 활발하게 지원하는 움직임을 눈여겨 볼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음

3. 국내 및 성남의 문화예술인 실태파악과 현황

◎ 문화예술지원 대상과 범주 규정을 위한 개념적 파악

-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혼용하여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 문화예술이라는 범주는 ‘(순수) 예술’이라는 특정분야에서 나아가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와 예술을 결합하여 문화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암묵적이고 공공연하게 정의, 규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 업계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못한 채 필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자료들을 살펴보면 예술인의 활동 분야와 범주에 대중음악, 영화, 방송, 만화, 방송 등과 같은 문화산업, 창조산업, 대중문화 등과 관련된 분야가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법적 정의와 규정

-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인에 관한 제도적, 법적 정의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알 수 있는 자료들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 규정되어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주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한편,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제2조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화 산업’에 대한 정의를 함께 두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유추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인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 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의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2013년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순수 예술창작에 종사하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예술인이라는 명칭과 정의를 규정, 사용하고 있으며 예술 활동을 예술인의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자 내용으로 삼고 있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상기의 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말하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자들을 예술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문화예술기획자’, 즉 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기획, 제작, 유통 등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은 예술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상기의 법을 기준으로 예술인의 범주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거나 할 경우, 이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예술 활동을 해왔거나 이를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을 얻어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한동안 중지하거나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 예술가를 비롯하여 신진예술가들을 모두 포괄하기 힘든 정의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성 혹은 기득권 예술가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2014년 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예술인이라는 명칭 대신 ‘지역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문화예술인을 규정하고 있음.
- 상기의 법에서 말하는 지역문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 정의하며 문화예술인에 ‘지역문화전문인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 지역문화전문인력이라 함은 지역문화의 기획, 개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규정하며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문화예술인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의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6년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실태를 조사, 발표하였음
- 아울러 이 자료는 현재, 성남의 문화예술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계획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는 성남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과 실태를 파악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를 근거, 성남의 문화예술인의 현황과 실태를 유추하고자 하는데, 일부 주요한 사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표 13]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

(단위 :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전체		10.3	23.2	4.9	3.8	4.7	8.9	6.8
권역	서울	8.3	18.6	3.6	3.0	5.7	9.4	8.4
	인천/경기	8.6	22.6	3.7	2.9	3.1	5.7	12.1
성	남자	10.4	19.8	4.4	5.4	8.3	9.5	4.5
	여자	10.1	27.0	5.5	2.0	0.8	8.2	4.8
연령	30대 이하	1.8	14.5	3.4	2.6	0.5	11.8	14.6
	40대	6.3	20.5	7.9	3.9	6.7	10.3	4.8
	50대	12.2	29.5	5.5	4.2	8.1	8.2	3.2
	60세 이상	23.9	30.6	3.6	4.9	4.8	4.1	1.9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전체		8.8	6.7	9.7	3.8	3.6	2.5	2.2
권역	서울	7.2	7.6	10.4	6.1	6.0	2.3	3.4
	인천/경기	7.6	6.5	9.6	5.0	6.2	3.3	3.1
성	남자	6.5	2.6	11.2	5.2	2.6	3.4	2.2
	여자	11.5	11.2	8.1	2.4	4.8	1.5	2.2
연령	30대 이하	7.8	12.8	14.2	7.4	2.4	4.2	2.0
	40대	7.8	5.8	13.7	4.7	2.6	2.8	2.4
	50대	9.1	4.0	6.4	0.7	5.2	1.4	2.3
	60세 이상	11.1	2.0	3.7	1.8	4.3	1.3	2.1

(자료 출처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2016, 한국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문화예술인의 경우, 미술에 활동하거나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학, 연극,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4] 주 활동 예술분야의 입문 연도 - 연령별 활동 경력

(단위 : %)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전체		26.0	31.3	21.3	14.1	7.4
권역	서울	34.2	29.8	16.1	11.6	8.3
	인천/경기	28.6	32.9	17.5	11.6	9.5
성	남자	23.6	28.5	21.2	17.2	9.4
	여자	28.6	34.3	21.3	10.6	5.2
연령	30대 이하	59.0	36.1	4.8	0.1	0.0
	40대	11.9	45.3	37.4	4.8	0.6
	50대	9.8	25.7	31.2	29.7	3.6
	60세 이상	11.2	18.1	17.8	23.6	29.3

(자료 출처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2016, 한국문화체육관광부)

- 활동경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0~20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1.43%) 다음으로 10년 미만, 20~30년간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고, 분야별로 활동경력 분포도를 살펴보면 10~20년 미만이 문학(40.9%), 공예(40.8%), 영화(38.8%), 무용(34.7%), 국악(34.0%), 음악(33.0%), 미술(25.9%) 분야에서 많았음

[표 15]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단위 : %)

		전업 예술인	겸업 예술인
전체		50.0	50.0
권역	서울	59.9	40.1
	인천/경기	50.9	49.1
성	남자	47.6	52.4
	여자	52.7	47.3
연령	30대 이하	51.3	48.7
	40대	45.9	54.1
	50대	42.2	57.8
	60세 이상	61.8	38.2

(자료출처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2016, 한국문화체육관광부)

- 전업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전업 문화예술인은 방송, 영화, 만화 분야에서 많고 겸업 예술인은 사진, 공예, 음악에서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었음
- 이외에 개인 창작 공간 보유 현황의 경우,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답이 54.3% (집 안 19.4%, 집 밖 34.9%)이었으며 문학의 47.1%, 미술의 31.6%, 만화의 39.5%, 공예의 23.3%가 집 안에 창작공간을 별도로 보유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됨

◎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인 실태조사

- 2014년 경기문화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성남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권역의 문화예술인은 전시회(48.8%), 공연·연주(32.7%), 출판(18.1%) 순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발표자 공연은 20대 이하(54.5%), 전시회는 50대(61.3%)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전역(40.9%)에서 활동하고 예술단체는 거주 시/군(40.4%)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 가장 발달한 문화예술 분야로 전통예술을, 그리고 가장 낙후한 분야로도 똑같이 전통예술 분야를 지목함
-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문화적 여건과 환경은 서울 외 광역 시도 및 서울과 비교, 미흡한 것으로 인식들하고 있었으며 창작환경 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음
-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시급히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경기도 문화예술인은 창작활동 지원(43.5%), 법률과 제도의 정비(18.6%), 작품 활동 공간·시설 확충(8.1%), 문화예술 수요(시장)의 확대(6.2%), 예술진흥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확대(5.6%) 등을 손꼽았음

◎ 성남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실태와 활동 현황

- 성남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료가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정확한 실태와 현황조사에 관한 자료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혜자의 욕구와 동기의욕을 촉진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나, 현재 성남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한 상태임
- 이를 위해서는 성남 문화예술인의 활동과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인데, 이번 연구에서도 성남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조사는 요구되지 않았으며 이 점이 이번 연구의 한계점임을 스스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한편, 문헌조사를 통해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지난 2006년 문화통화 모델 창출사업을 준비하며 성남의 문화예술인 2000여 명 가운데 401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자료는 성남문화재단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서 찾을 수가 없었으며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현시점에서는 간접경로를 따라 성남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실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추후에라도 성남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의 실태와 현황조사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
- 현재 파악 가능한 성남 문화예술단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표와 같으며, 작년에 실시된 <성남형 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전략 연구>와 성남시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성남시사 5-현대사회_문화·예술·교육·체육>(201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음
- 우선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성남에서 최초로 태동한 문화예술단체는 1972년, 창립된 성남어머니합창단이며 1974년부터 성남문학동인회, 성남미술교사회, 성남서우회 등에 이어 경기연예협회 성남분실, 성남연극회 등이 잇따라 결성됨

- 시립 예술 단체로는 성남시립합창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국악단,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있으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성남시지부 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성남지부 등 주요 예술단체의 성남지부가 있으며 이외에도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문화 예술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표 16] 성남의 문화예술단체

구분	단체명		설립년	주요활동
시립	성남시립합창단		1986년	정기공연을 비롯, 기획 및 특별 공연,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 진행 이외 합창 드라마, 오페라, 우리 동네 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의 공연 활동
	성남시립교향악단		2003년	정기연주회 및 학생 초청 공연 ‘스쿨클래식’, 장애인을 위한 ‘희망콘서트’, ‘시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
	성남시립국악단		2005년	찾아가는 국악공연, 토요 상설 공연, 해설이 있는 공연 등 활동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1997년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음악 적응력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창단
사립 외	한예총 성남시지부		1986년	성안국악제, 무용제, 연극제, 음악제, 미술전, 시민백일장, 영화제 등으로 구성된 창단 이래 계속하고 있는 성남문화예술제 진행 이외 성남예술상, 모란민속5일장축제, 성남예술인워크숍, 미니콘서트 등 운영
	민예총 성남지부		2003년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토론회, 평화통일을 바라는 까치의 통일아리랑 등을 개최
	문학	한국문인협회 성남시지부	1975년	성남문협 기관 문예지인 『성남문학』 발간 외 시민백일장, 문예지 『우리동네』 발간 등
		문학시대 동인	1987년	성남문협 산하 문학 동인 단체, 『문학시대』 출간 외 월례 문학작품 품평회 시 낭송회 등
		에세이 성남	1991년	성남문협이 주관하는 시민 백일장 입상 주부들의 문학동인 클럽, 월례 문학 토론회 개최
		한국작가 동인		중앙문예지 계간 『한국작가』 등단 신진 작가 동인 모임
		그 외 문학단체		수필문학동인회, 문예동인, 소설미학, 성남청년문학회, 분당수필문학회, 서현문학회 등

구분	단체명		설립년	주요활동
사립 외	국악	한국국악협회 성남시지부	1982년	성남 국악을 대표하는 공인 국악 단체로 성남국악제 및 농악 경연대회 등 개최
		대한시우회 성남지회	1973년	성남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 등
		이향우경기민요단	199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이수, 수련하는 연주단
		우리소리연구회 '솟대'	1996년	기악 중심의 전통국악 연주단, 정기연주회, 국립극장 초청 '선반판굿' 공연 등
		판소리보존회 성남지부	1998년	판소리 전문인 육성과 보존, 문효심판소리 완창 발표회, '성남 판소리큰잔치' 개최
		한국농악보존회 성남지회	2004년	성남 지역 고유 농악 '성남 오리뜰 농악' 원형 보존 및 계승발전, 지역 농악 및 민속놀이 발굴연구
		그 외 국악단체		풍물소리 사우,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가야금양상블 눈꽃소리, 풍물굿패 두령, 소리친구회 등
	무용	한국무용협회 성남시지부	1985년	성남무용제를 비롯한 창작무용제 등 개최
		성남무용단	1982년	성남무용의 전문화와 창작화 노력, 한국무용전문공연단
		이순림무용단	1994년	성남시생활무용협회 창립과 생활무용예술제 주도
		어울림청소년무용단	1995년	'청소년 열린춤' 개최 등
		그 외 무용단체		발레미레, 우리춤예술원, 이정희현대무용단, 황미숙현대무용단 등
	연극	한국연극협회 성남시지부	1985년	성남연극제, 성남연극인 합동공연, 전국연극제 경기예선대회, 아마추어연극경연대회 등 주관
		극단 동선	1982년	자체 소극장 운영하며 상설 및 기획 공연, 연극아카데미 운영
		그 외 연극단체		극단 푸리, 극단 남한산성 등
	음악	한국음악협회 성남시지부	1987년	성남음악제, 성남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성남박태현전국창작동요제 등 성남 대표적 민간 음악단체
		성남시 여성합창단	1972년	난파음악제 등의 시민 정서 함양에 일조하는 활동
		수정구·종원구·분당구여성합창단	1994, 1995년	구민의 음악을 통한 여가 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구청 직할 여성합창단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1998년	음악을 통한 청소년 전인 교육과 전문 음악 연주인 육성 목적, 해외 연주 등 왕성한 활동
		박태현기념사업회	1993년	작고 박태현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 박태현음악제 후원과 박태현 음악상 운영
		유엔젤보이스	2008년	클래식계의 아이돌로 국내외 공연 및 타 예술장르를 접목한 예술활동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2003년	해외 초청공연 및 성남국제청소년원드페스티벌 개최
		그 외 음악단체		21세기혼성합창단, 성남오라토리오합창단, 성남YMCA여성합창단, LOGOS남성합창단, 분당아버지합창단, 분당주니어필아모닉 오케스트라, 분당원드오케스트라, 성남교사푸르르원드앙상블, 분당심포니오케스트라, 알함브라기타합주단 등

구분	단체명		설립년	주요활동
사립 · 외	미술	한국미협 성남시지부	1983년	성남미술제, 모란현대미술대전, 향토작가초대전, 남한산성 꿈과 희망전 등 전시사업 등
		한모골 미술인회	1996년	성남, 광주, 하남시 등의 미술인들의 교류 및 전시활동
		분당작가협회	1999년	분당구 거주 전업미술작가 중심의 교류 및 전시활동
		성남조각협회	2002년	경기도 인근 조각가 단체로 정기회원전, 탄천조각전 등 활동
		한국서예협회 성남지부	1994년	서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성남서예가총연합회	1997년	지역 서예 단체의 공동 네트워크 형성 목적
		한국문인화협회 성남지부	2001년	전통과 현대의 접목으로 문인화 발전 및 저변 확대
		성남사생회	2010년	동호회로서 사생 작품 활동 및 전시
		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지부	1988년	사진관련 성남시 지원 사업 공식 주관
		그 외 미술단체		탄천현대작가회, 성남시한지공예가협회, 성남서가협회, 산성작가회, 숙인회, 자유미술그룹IN, 동시대미술연구회, 월산미술포럼, 분당아티스트, 민미협성남지부, 산성수목회, 들꽃미술가회, 사진동우회 등
	연예 · 영화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성남지부	1986년	연예인초청공연 외 주부가요제, 시민노래자랑, 남산산성 전국 가요제 등 정기 연예사업 주관
		한국영화인협회 성남지부	1996년	성남문화예술제 일환으로 영화제 등 정기사업으로 영화제 개최

(자료 출처 : 성남형 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전략 연구, 2016, 성남문화재단>

- 성남시의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기도 한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성남지부에는 ‘한국문인협회 성남시지부’, ‘한국국악협회 성남시지부’, ‘한국무용협회 성남지부’, ‘한국연예협회 성남지부’, ‘한국연극협회 성남시지부’, ‘한국음악협회 성남시지부’, ‘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시지부’, ‘한국미술협회 성남시지부’, ‘한국영화인협회 성남시지부’ 등 9개의 단체가 산하단체로서 존재하고, 이와 더불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산하의 성남지부가 활동하고 있음.
- 지난 2016년 성남에 열린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한 예술제’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예술제에는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120여 개가 참가하였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성남지역에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아울러 성남예총이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하여 2017년 10월 개최된 <성남문화예술제>에는 국악, 가요, 영화, 사진, 음악, 미술, 무용, 문예, 연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예술가들과 시민예술가들이 대거 함께 참가하여 예술제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함

- 또한 관계자 인터뷰에서도 이 사실은 입증되었으며 현재, 성남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실제로 많으며 이들은 성남을 벗어나 서울, 경기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증언됨
- 아울러 아주 극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나, 성남문화재단의 내·외부 인터뷰 결과를 통해 도출된 성남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실태와 활동현황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성남에는 나름 많은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존재하나, 예총 혹은 민예총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자주적인 방향과 계획 아래 활동하기를 더 선호함
 - 다시 말하면 성남에는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으며 이들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지역 밖에서 활동을 나름대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에 덧붙여 성남에는 지역 문화예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이들을 위한 활동무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음
 - 성남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창작지원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창작과 교류가 가능한 공간 마련 및 제공, 기획자와 매개자 등의 발굴과 양성 같은 다양한 인적 자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되는 사업을 원하고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성남은 도시의 역사가 짧으며 이와 관련 뚜렷한 문화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탓에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이를 통해 성남의 문화예술 경쟁력과 잠재력을 배가하고 문화콘텐츠와 스토리를 개발하여 만들어 나갈 계획 및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을 성남문화재단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음
 - 더불어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과해서 안 될 요소로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창작활동을 발전시키는 과정과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고 있음

◎ 이에 덧붙여 참고할 만한 자료로 2015년 성남문화재단에 실시한 <2015년 성남시민의 문화 참여 활동조사 결과보고서>인데, 이 자료 중에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된 항목들의 설문결과 일부를 정리,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성남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관련 인식도와 관련하여 1) 문화예술의 중요성, 2) 성남아트센터 인지도, 3) 성남문화재단 인지도, 4)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결과에서는 성남시민의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높은 응답률(81.0%)을 보여주었으며, 성남아트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제시하는 한편, 성남문화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재단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저조한 응답률 (19.8%)을 보여주고 있음
- 성남아트센터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지만, 공간 주체는 시민과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민예술극장을 지향해야 한다(69.2%)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음

- 성남시가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은 다양한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37.3%),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행사와 시설에 대한 홍보(13.6%), 시민들의 문화예술 교육 확대(10.9%)로 나타난 반면, 지역예술가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7.9%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줌
-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먼저 지원할 대상으로는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보다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일반인이 가장 높게 손꼽혔으며, 다음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방법으로는 현금과 현물 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주었으며, 다음으로는 연습실 또는 공연 전시 시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었으며, 문화예술단체 혹은 예술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지원하는 활동의 우수성, 지원하는 예술 활동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혹은 예술인의 예산 집행 투명성 등이 제시되었음

4.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한 SWOT 분석

1)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환경요건에 대한 SWOT 분석

-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와 성남의 지역적 특성 및 환경여건들을 고려하고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적용, SWOT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표 17] 성남시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문화예술 인력 - 사랑방클럽이라는 생활문화예술 공동체와 활발한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실태 파악 부재 -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과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유망산업·기업의 입주와 인프라 - 성남문화재단의 물적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인의 외부 활동 -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타 도시의 관심 집중
기회요소 (OPPORTUNITY)	위협요소 (THREAT)

- 강점 (STRENGTH)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성남 문화예술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에 인접해 있고 지역의 내부 또는 외부에 접근하기가 편리한 성남시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적 문화적 수준도 높은 동시에 높은 수준의 문화적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누누이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성남의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활동인 사랑방클럽의 위상과 입지, 대내외적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확보한 상태임

· 약점 (WEAKNESS)

-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핵심자료라 할 수 있는 성남의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현황 파악에 관한 데이터와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며 지역 문화예술인의 지역 내 활동과 참여 또한 미비한 상태임
- 더불어 성남의 경우, 문화재단이 중점사업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아트 외에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문화예술 자원이 부재하며 성남아트센터와 전시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공연 등의 프로그램 역시 성남의 문화정체성을 드러내는 프로그램 혹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된 문화자원이라 할 수 없음

· 기회요소 (OPPORTUNITY)

- 성남시에는 현재, 분당과 판교 신도심 등지에 벤처산업, 창조산업, IT 관련 문화콘텐츠산업 등이 유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문화적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이와 관련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신진예술지원 프로젝트만 존재할 뿐 복합문화공간이나 지원조직은 부재한 상태로 알려져 있음
- 국내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창작공간 부족과 지원 활성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아트센터, 전시관 등 대내외적 인지도가 높은 공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남의 원도심에 오픈한 공공예술창작소 등 또 다른 창작 및 발표를 위한 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

· 위협요소 (THREAT)

- 성남의 문화예술인일 경우, 서울에 인접해 있고 경기권역에 속하는 관계로 지역 내부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근처의 서울이나 경기권역에서 활동하고 그곳의 지원제도에 응모를 하거나 수혜를 입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대외 유출과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내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생활문화예술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급증하면서 경기권역의 군포, 화성, 수원, 안산, 부천 등지에서도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지원정책이 수립, 활성화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예술과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지원정책과 시책이 이뤄지면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하는 정책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2) 대응방안과 발전방향

· S-O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

-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활동에 바탕을 두고 개발한 지역 문화브랜드를 뒷받침하고 이어갈 지역의 차세대 문화자원을 재발굴하고 정책적으로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의 문화예술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과 시민예술가의 연계가능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새로이 발굴하고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산업·기업과 연계한 유망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양성,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자원으로 특화하여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성남시의 새로운 문화정체성으로 진흥 및 발전시킬 수도 있음

· S-T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

-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과 커뮤니티아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성남의 풍부한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게 창작활동 동기와 의욕을 창출하고 고취하며, 이들의 외부 활동과 지역 내 활동을 동시에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집결하고 교류하는 정책적 장치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 W-O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

- 지역에 특별한 문화정체성과 특색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활동에 대한 정보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현황과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선방안과 전략적 정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 문화예술인의 외부 활동을 방지하고 지역 내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시설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략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활동과 교류를 위한 장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W-T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

- 생활문화예술 공동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전문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정책과 전략이 마련되어 균형 있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경쟁력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성남 특유의 지역 문화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새로이 발굴하고 개발하는 체계 구축이 요구됨

Ⅲ. 국내외 문화예술지원정책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시사점

1) 프랑스 문화예술지원제도의 개요와 동향 분석

◎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정책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서 문화예술지원에 있어서도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한 나라임
- 프랑스는 국가가 문화예술정책을 통제할 경우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창작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음
-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예술분야에 따라 적용되는 창작지원제도와 예술가들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분됨
- 특히 우리가 주목 할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역할을 잘 구분해서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창작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나, 이러한 문화예술창작 지원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의 제약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각 문화예술분야별 지원은 주로 예술 장르별로 책임운영기구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창작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맡고 있음
- 프랑스에서 지원되는 문화예술창작지원은 크게 문화예술창작 프로젝트지원, 공공주문, 창작활동 보조금 지원, 연구 및 활동 지원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창작 프로젝트지원'은 예술 영역별로 형성된 기금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제도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큰 지원제도로 보임
- 한편 '연구 및 활동 지원제도'는 개인 창작활동지원 및 첫 전시회 지원, 예술 관련 비평연구 또는 비평출판 지원으로 현재 한국 문화예술창작지원에서 부족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DRAC

- 프랑스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양한 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를 'DRAC(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즉 '지역 문화사업국'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DRAC은 중앙정부의 문화통신부 소속으로 각 지역의 문화사업 혹은 문화행사를 총괄해서 관여하고 있는 프랑스 문화정책 지방분권화의 대표적인 시스템이며 1977년 시작해 1992년 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문화정책에 행정적 도움 혹은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문화, 예술, 교육 및 지식의 전달, 문화 다양성과 확장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예술 관련 사업들을 세분화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일례로 파리와 주변 도시들이 속해 있는 수도권의 DRAC Ile-de-France의 공식 소개에서 명시된 그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 정책과 유기적인 사회 결합을 위한 정책 참여
 - 경쟁력 있는 문화 소재 개발과 학술적 연구에 기여
 - 지역 및 도의 시민들에게 문화 정보 공유와 소식 전달

1)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2016년 8월 30일 검색.

- 문화부 관할의 정부 관련 부서들과도 연계하여 위 언급한 분야에 대한 학술, 기술적 규제 적용, 국가 정책 및 산업 지원 및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과의 협력 발전 도모

◎ 프랑스의 지방분권제도와 문화정책

- 프랑스는 1982년부터 지방분권(décentralisation)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변화와 더불어 문화정책에도 변화가 불면서 광역단체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관리자로서 공공공문화시설의 관리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각 문화단체에 재정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자크 뒤아멜(Jacques Duhamel) 문화부 장관(1971-1973)은 프랑스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활동만으로 문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고, 주요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고 강조²⁾했으며 이를 계기로 프랑스는 1970년대에 국가가 주도해오던 문화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해 옴.
-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문화정책을 시행하는 권한과 재정권 또한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광역단체들은 국가와 함께 문화분야의 기금인 FRAM(Fonds Regionaux d'Acquisition des Musees: 박물관구매레지옹기금)과 FRAC(Fonds Regionaux d'Art Contemporaine: 현대미술레지옹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지방정부들은 문화 활동을 증진하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문화발전협약(conventions de developpement culturelle)을 체결하며 문화발전협약은 중앙정부를 대표해서 지역 문화사업국(DRAC)과 지방정부가 체결을 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351개의 협약 중에서 40%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작은 지역의 지방정부와 체결하고 있으며³⁾, 문화발전협약의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평적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정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프랑스 정부의 ‘창작의 자유 및 건축과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 프랑스 정부는 2016년 7월 7일, ‘창작의 자유 및 건축과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LCAP: la loi sur la liberté de création, l'architecture et le patrimoine)’을 채택했는데⁴⁾, 이 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창작의 자유 및 다양성 보장
 - ① 건축 : 본 법안이 1977년 이래 처음으로 건축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인 만큼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시험 프로젝트들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건축 분야 제도 마련
 - ② 공연 예술 : 공연 아티스트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주력, 무용, 서커스단 대상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확대, 도시 공연예술과 거리예술 확대 및 청년들의 창작활동 장려
 - ③ 라디오 방송 : 획일성에 맞서고 음악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라디오방송 할당량 조정
 - ④ 시청각 및 영화 : 시청각분야 창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최근 상영관 영화 보급 규정, 방송과 영화 제작자간의 관계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바가 있으며, 또한 영화산업 분야 세 금 공제 혜택 제공
 - ⑤ 지역 현대미술품 기금(FRAC) : 현대미술작품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현대미술작품기금의 현대미술 소장품들에 대한 양도 불가능성 인정
 - ⑥ 아티스트 고용 환경 개선 : 8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법령에 따라 공연계 종사자들의 실업보험을 보장하기 위해 1억5백만 유로 투입 예정, 공연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 가을 9천 만유로 투입

2) Xavier Greffe et Sylvie Pflieger, 2009, 'La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34.

3)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2017년 10월 10일 검색.

4) <https://www.legifrance.gouv.fr>, 2016년 9월 23일 검색

- 문화유산 보존의 현대화와 접근가능성 확대

- ① 고고학 : 문화유산에 대한 고고학적 예방 차원의 과학적 관리
- ② 보존 구역 : 기존의 보호 범위인 ‘보존 구역’과 더불어 ‘특별 유산 지역’의 별도의 범위를 지정, 지자체에게 문화재마다 보호 수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 ③ 문화재 거래 방지 : 문화재 거래 방지 방안 강화, 위기에 처한 문화재 보호 및 분쟁 시 문화재 안전 보장
- ④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리 방안을 프랑스 법에도 적용

- 아동·청년의 문화 예술 활동 장려 (문화를 통한 자아발견 및 자아개발)

- ① 문화 예술 교육: 문화예술 분야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 개선, 청년 독서 활성화 사업, 청년 오케스트라, 도서관 일요일 개방 등의 정책을 통해 예술문화교육 확대
- ② 백여 개의 학교 청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실시, 예술가들 사이의 교류 및 소통 촉진

· 이처럼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중심에는 개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접근성(Accessibilité)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정책 실천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문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⁵⁾함

- ◎ 예술가들에 대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은 사회보장법전(article L. 311-2 du Code de la securite sociale)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술가들은 ‘급여 예술가(Artistes salaries)’, ‘작가예술가(Artistes-auteurs)’, ‘공연예술가(Artistes du spectacle)’, ‘급여예술가(Artistes non salaries)’로 구분됨

2) 창작지원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적 쟁점들

◎ 창작과 공연예술의 중요성

- 2016년 4월 20일에 프랑스 문화부 장관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는 ‘창작과 공연예술(le spectacle vivant)’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의 지원을 강조함
- 아줄레 장관은 프랑스에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1300개의 독립 단체들이 있고 문화라고 이름이 붙은 기관은 약 360개에 달하고 축제는 4000개가 넘는데,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도 보조를 할 것이라고 밝힘⁶⁾
- 이를 위해서 2016년에는 1천2백50만 유로를 새롭게 책정해서 독립공연예술단체(Compagnies independants du spectacle vivant), 예술가 거주지(Aux residences d’artistes), 그리고 창작을 위한 개인이나 연구단체들에 대한 예술창작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언급함
- 이를 위해서 70여개의 단체, 젊은 예술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140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공연예술에 대한 분산, 투자함

5) 이를 위해서 문화통신부 산하에 2003년부터 ‘접근성을 위한 문화단체들의 모임(Réunion des établissements culturels pour l’accessibilité, RECA)’을 결성해서 운영.(<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2016년 7월 2일 검색.) 한 예로, ‘2005년 장애인들의 시민성, 참여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위한 법률(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에 의거. 2015년 기준 프랑스의 영화관 82%가 장애인들이 쉽게 전근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비단 장애인들에 국한된 것이 아님. 2009년 하나의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accessible.net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시설의 정보를 제공. (<https://www.legifrance.gouv.fr/>, 2015년 12월 2일 검색.)

6)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2016년 9월 24일 검색.

3) 중앙정부와 지자체 별 운영 형태 및 현황

- ◎ 프랑스의 문화통신부의 예산은 크게 ‘창작(creation)’, ‘지식전파와 문화민주화 (Transmission des savoirs et démocratisation de la culture)’, ‘문화유산 (patrimoin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창작(creation)’은 공연예술 창작, 제작 및 배급, 조형예술 창작, 제작 보급 그리고 도서창작, 제작 보급에 대해서 지원함
- ◎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 프랑스의 문화통신부는 ‘예술창작국(Direction generale de la creation artistique)’을 통해서 예술 창작의 지원 (soutien a la creation artistique)을 시행하며 이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예술 창작활동과 환경에 대한 지원임
 - 프랑스 문화통신부 산하에는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기관(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ere administratif)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판과 관련해서는 ‘국립서적센터(Centre National du Livre)’를 두고 작가, 출판사를 지원하며 영화 또는 영상물과 관련해서는 ‘국립영상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를 두고 영화감독, 배우, 기술자 그리고 단체를, 미술과 관련해서는 ‘국립조형예술센터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음
- ◎ DRAC과 문화예술지원사업
 - 예술가 지원 측면에서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기구인 조형예술위원회(Délégation aux arts plastiques)는 ‘현대미술국가기금(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과 ‘현대미술지방기금 (Fonds Régionaux d'Art Contemporain)’을 통해서 현대미술작품을 구입, 전시, 보존 등을 통해서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문화사무국(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과 지방정부가 함께 중앙의 조형예술위원회 역할을 수행함
 - 이처럼 개별 예술가의 창작 지원은 지역별로 문화부의 특별행정기관인 DRAC과 창작지원재단이 공동으로 지원이 이뤄짐
 - 지원절차는 창작지원재단의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예술가를 추천한 후, 국립조형예술센터(CNAP)의 동의를 거쳐 DRAC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국립조형예술센터(CNAP)는 약 140가지의 민간 혹은 공공에서의 예술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이와 같이 다양한 예술가 지원은 중앙, 지역 또는 민간, 공공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함
 - 한편 지역문화사무국은 예술가의 작업실의 정비 및 예술 활동을 위한 장비를 지원(Les aides à l'installation ou à l'aménagement d'atelier)하며 이를 위해서 예술가는 작업자의 소유주이거나 임대료를 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은 예술가가 지출한 비용의 50% 이하, 7,500유로 이하로 제한⁷⁾하고 있음
 - 지방문화사무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과 협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이를 근간으로 이뤄지고 있음
 - 한편 프랑스 중앙정부는 ‘특별문화보조금(Dotation culturelle spéciale)’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문화예술공공단체를 지원하는데, 특히 지방문화사무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함
 -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 간섭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 가능함

7)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2017년 12월 14일 검색.

4) 재정 조달 및 확충방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중앙과 지역의 갈등 또는 지역 간 갈등, 중복행정, 규모의 경제적 취약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적 정비를 해옴
- 프랑스는 지방정부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홍보, 이미지 개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함
-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지방분권화와 함께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책도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임
- 물론 프랑스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풍부한 것은 아니고 지방정부 간 재정상태의 차이도 존재하나, 프랑스의 국가지원재정(Financements par concours de l'Etat)은 크게 세 원칙에 의해서 이뤄짐⁸⁾
 - 국가보조금의 종합화(Globalisation des subventions de l'Etat)
 - 새로운 부담의 보상(Compensation des charges nouvelles)
 - 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Péréquation entre collectivités locales riches et défavorisées)
- ‘국가보조금의 종합화’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자치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합보조금(Subventions globales)의 형태로 지급함
- 프랑스는 국가 재원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보강하고 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을 조정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와 권한에 맞는 재정이 수반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에는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적 차원에서 명문화함
- 지방분권화 이후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통신부와의 수직적 종속 관계가 아닌 동반자 내지 협력관계를 구성 및 발전하고자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대체로 ‘계약’이거나 ‘협약’의 형태로 ‘임시협력(coopération ponctuelle)’, ‘공동자금조달(cofinancement organisé)’, ‘관공동관리(cogestion d'institution)’, ‘계약정책(politiques contractuelles)’ 등으로 구성⁹⁾됨
- 한편 프랑스의 문화통신부는 2014년부터 지방정부와 ‘문화협정(pactes culturels)’을 체결하는데, 이 문화협정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화와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이 문화협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문화의 선택(le choix de la culture)’의 자유를 유지 혹은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2015년까지 프랑스 문화통신부(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는 지방정부와 문화협정(pactes culturels)을 60개 체결하였고, 2016년 초 25개의 협정을 더 체결함
- 이와 같은 문화협정을 위해서 2015년 예산보다 2% 증가한 7억 8천만 유로로 증가하였고 이 문화협정의 원칙은 ‘중앙정부 즉 문화통신부는 향후 3년(2015-2017)간 프랑스의 지방정부 혹은 마을이 문화와 관련된 예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문화협정은 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공통적 가치의 초석(un socle de valeurs communes)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됨

8) 최진혁, 2008,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제2호, pp. 129-130.

9) Mario D'Angelo, 2000, Cultural Policies in Europe: local issues, Council of Europe, p. 68.

- 이 문화협정을 통해 문화가 ‘함께 살아가자(vivre ensemble)’에 기여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문화협정은 아래의 4가지를 강조¹⁰⁾하고 있음
 - 예술 창작, 확산, 혁신에 기여하는 우호적인 환경 조직(l'organisation de conditions favorables à la création artistique, à sa diffusion et à son renouvellement)
 - 문화·예술 교육의 범주 안에서 좋은 문화교육의 발전(le développement d'une formation culturelle de qualité, en particulier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 현재는 많은 대중들이 접근을 가능하게 그리고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 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 (la préservation et la valorisation du patrimoine, pour garantir, aujourd'hui, son accessibilité au plus grand nombre et, demain, sa transmission aux générations futures)
 -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식(une reconnaissance du droit de chacun à développer la pratique culturelle de son choix)

㉠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미션과 프로그램

- 프랑스의 문화통신부는 크게 세 가지의 미션(Missions)을 수행하고 각 미션에 따른 7개의 프로그램(Programme)을 운영하며 다른 부처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고 있음

미션 문화 (Mission culture)	Programme 175 문화유산
	Programme 131 창작
	Programme 224 지식전파와 문화민주주의
미션 연구 및 고등교육 (Mission 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Programme 186 문화(과학)연구
미션 미디어, 도서, 문화산업 (Mission médias, livres et industries culturelles)	Programme 180 언론
	Programme 334 도서, 문화산업
	Programme 313 시청각

10) <http://www.gouvernement.fr>, 2016년 8월 30일 검색.

[표 18] 문화통신부에 할당되는 각 부처의 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15(본예산 기준, LFI)	2016(예산안 기준, PLF)
교육부	2,772.4	2,775.0
외교부, 국제개발	783.5	751.0
국방부	77.1	79.7
스포츠, 청소년, 협회활동	68.1	102.5
재정, 공공계정, 경제, 산업, 디지털	12.0	12.1
내무부	3.7	4.1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개발	7.5	8.0
법무부	3.9	4.3
해외 프랑스령 국가	2.6	1.4
총리실	3.6	5.0
여성인권	0.1	nc
합계	3734.6	3743.0

(자료출처: Ministère des Finances et des Comptes Publics, 2016., Crédits du budget général et budgets annexes des autres ministères affectés à la Culture et à la Communication, 2015-2016)

[표 19] 문화분야 영역별 예산 규모(중앙 기준)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창작	자식문화와 문화민주화	문화유산	문화 관련 연구	미디어 도서 문화산업	합계
2016	747	464.7	871.2	123.1	4402.6	6608.6
2015	734.3	436.87	752.99	117.14	4379.87	6421.17
2014	745.97	1086.71	743.95	118.09	5583.85	8278.57
2013	774.89	1077.47	775.92	118.83	4616.56	7363.67
	문화(Mission Culture(P175, P131, P224))			문화 관련 연구 및 고등교육	미디어 도서 문화산업	
2012	2732.29			124.07	4578.65	7435.01
2011	2695.15			121.55	4677.76	7494.46
2010	2921			161	4225	7307
2009	2811			157	3983	6951

(자료출처: 문화분야 영역별 예산은 문화통신부의 예산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LF)을 바탕으로 작성)

㉠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예산

-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에 기초하여 관 주도적 지원이 중요하게 이뤄짐
- 한편 지원은 중앙정부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작은 행정단위의 정부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코뮌이 책임지고 있는 문화지출이 가장 큼
- 프랑스 지방정부 문화예산 지출의 특징은 작은 단위의 행정단위인 코뮌이 59.8%를 지출하고, 지역 간 협의에 의한 문화예산 지출이 12.9%로 광역시의 지출 9%보다 크다는 점

[표 20] 프랑스 지방정부 문화 관련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유로, %)

	문화 관련 지출 총액	지방정부 문화지출 비율
광역시(Régions)	691.2	9.0%
도(Départements)	1,413.3	18.5%
코뮌(Communes) (**)	4,550.9	59.5%
코뮌그룹(Intercommunalités) (***)	988.6	12.9%
합계	7,644.0	100.0%

(자료출처 : DEPS /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4)

(**) 10 000 명 이하 코뮌(communes) 제외 (*) 해외영토 포함

[표 21] 프랑스 지방정부 문화 관련 지출 규모

(단위 : %, 유로)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지출 비율	주민 1인당 평균 지출 총액
광역시(Régions)	2.7%	10,8
도(Départements)	2.1%	22,1
코뮌(Communes) (**)	8.0%	148,2
코뮌그룹(Intercommunalités) (***)	7.0%	43,6

(자료출처 : DEPS /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4)

(**) 10 000 명 이하 코뮌(communes) 제외 (*) 해외영토 포함

-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하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에서 문화 관련 지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정책은 지방자치 수준에서 결정됨
- 특히 지방정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큼

[표 22] 프랑스 지방정부 문화 관련 분야별 지출

(단위 : %)

		코뮌 (Communes)	코뮌그룹 (Intercommunalités)	도 (Départements)	광역시 (Régions)	합계
문화유산 보존 및 전파	도서관	18	23	14	n.d.	n.d.
	박물관	11	12	14	n.d.	n.d.
	고문서 보관 소	2	1	13	n.d.	n.d.
	문화유산 유 지 및 보수	5	2	19	n.d.	n.d.
	소계	36	38	59	23	39
문화·예술 활동	무용	18	29	n.d.	n.d.	n.d.
	연극	10	9	n.d.	n.d.	n.d.
	영화와 실내 공연	4	5	n.d.	n.d.	n.d.
	순수미술	4	4	n.d.	n.d.	n.d.
	문화활동	24	13	n.d.	n.d.	n.d.
	소계	61	60	38	76	58
기타		3	2	3	1	3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출처 : DEPS/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4)

(**) 10 000 명 이하 코뮌(communes) 제외 (*) 해외영토 포함

- 프랑스 문화정책 실천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문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5) 지원제도의 유형별 분류 및 특징

① 창작지원제도

㉓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¹¹⁾

- 국립조형예술센터는 문화부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어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국립조형예술센터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구입해서 프랑스 미술관 또는 박물관 및 해외에 작품을 대여하는 사업도 수행하며, 이를 통해서 현대예술기금(Le 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현재 10만 작품 이상을 소장하고 있음
- 현대예술기금(Le 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이 1982년에 창설되었으며, 예술진흥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주요한 기관으로서 현재 프랑스의 모든 광역단체에 설립이 되어 있음
- 처음에는 현대예술작품구입이 주 기능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의 주요한 도구가 되어 예술품 전파를 통한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전시회 개최, 출판, 예술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담당함
- 2016년에는 203명의 384개의 작품을 237만 유로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한편, 246개의 프로젝트의 창작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 134명은 개인 예술가임

11) <http://www.cnap.fr>, 2017년 12월 12일 검색.

- 이러한 창작 프로젝트 지원(연구지원비(Allocations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d'un projet))에 100만유로(12억 원)가 조금 넘게 지원됨
- 국립조형예술센터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가이드(Guide pour les professionnels), 예술가 레지던스 가이드 등을 발간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메세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이 필요한 행정이나 법률에 대한 정보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배포하기도 함
- 국립조형예술센터는 특별 지원(Allocations exceptionnelles)으로 일시적으로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최대 1,000유로까지 지원하는데, 특별 지원은 예술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구입 용도도 아니고 따로 심사를 매년 심사를 거쳐 약 100개 정도의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으로 지원함

◎ 창작지원기금 (Fonds d'incitation à la Création, FIACRE)

- 창작지원기금은 예술가와 예술창작 전문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로 창작지원, 개인 창작 지원, 첫 전시회 지원, 창작 체류활동 지원, 예술 관련 출판 지원 등의 활동으로 구분해서 지원함
- ‘개인에 대한 창작 지원(Les aides individuelles à la création)’은 현대창작물에 대한 예술가 개인 활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 지원은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최대 8,000유로까지 지원함
- 지원대상은 전문예술가로 회화, 조각, 그래픽디자인, 사진, 공업디자인, 비디오예술 등 대부분의 예술 장르를 지원함
- ‘첫 번째 전시회 지원제도’는 시각예술의 경우 예술가가 첫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1976년에 정부지원 법률을 만들어서 지원을 시작한 제도로서, 첫 번째 전시회 지원제도 신청은 예술가와 화랑이 함께 전시 예산안을 작성하고 화랑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게 됨
- 예산은 정부와 참여를 지원한 화랑이 절반씩 분담하며 대상은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예술가로 최근 10년 동안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은 예술인으로 규정함

◎ 예술인의 집(La Maison des Artistes)

- 예술인의 집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음
- 예술인의 집에서는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지원하며 이러한 법률지원 은 저작권, 세금 그리고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 등에 대해서 실시됨
- 프랑스의 예술가들은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신고를 해야만 예술가 지원에 신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이를 위해서 일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에게 ‘사업자등록번호(Système d'identification du répertoire des établissements)’를 교부함
- 이에 따라 프랑스 예술가들은 작품을 판매할 때 청구서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하고 이를 연말에 소득신고를 해야 함
- 이러한 소득신고를 근거로 예술가의 집에서 예술가의 보험료를 결정하며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전문 예술가들도 소득신고를 받고 있으면 이들을 위한 세제 혜택에 대한 도움을 제공함
- 조형·시각예술을 주로 하는 작가들로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예술가의 집에 등록을 할 수 있음
- 물론 소득이 낮을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가입이 결정되며, 소득이 매우 낮다고 해서 가입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님

- 가입이 완료가 되면 예술가들은 의료보험, 장애, 노후, 가족수당 등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술가들에게는 필수보험 이외에도 보충보험(le régime complémentaire obligatoire de Retraite des Artistes-Auteurs Professionnels과 Institution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 l'enseignement et de la création) 가입이 의무화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음

② 작업공간(Atelier) 지원정책

- 프랑스에서는 예술가의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예술창작 지원측면에서 작업공간을 제공함
- 이러한 작업공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집에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며 공공작업공간의 배당은 예술가의 예술성, 소득수준, 작업형태, 예술가의 가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최근에는 ‘예술 무단점거(Squat Artistique)’로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나 거주권이 없는 예술가들이 빈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창작공간과 대안적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운동이 프랑스에서 확산 중이며 이러한 예술 무단점거의 형태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점차 전국적인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파리에 있는 ‘공동의 작업장(l'Atelier en Commun)’¹²⁾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창조를 위한 공간으로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 운영방식에 따라서 운영됨
- 이 공간의 특이한 점은 이곳을 이용하고 싶은 이들은 사용료를 내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를 이용해서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공간은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열리고 주말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개방됨

③ 기업의 문화예술을 위한 메세나

- 프랑스에서는 1987년에 <메세나 진흥에 관한 법률(la loi du 23 juillet 1987 sur le développement du mécénat)>이 제정되었음
- 이 법을 토대로 2003년 8월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Loi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x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개선, 공익재단의 세금감면, 공익재단의 설립 절차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또한 기부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를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함
- 1979년 발족한 상공업메세나협회(ADMICAL: 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u Mécénat Industriel et Commercial)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메세나 교육·홍보와 관련 법률·제도 연구 조사,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의 역할도 수행함
- 프랑스에서는 ‘메세나(mécénat)’와 ‘후원(parrainage)’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메세나란 반대급부의 기대 없이 공익을 실현하는 단체에 대한 금전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를 말하는 반면, 후원이란 기업의 이미지 증진이나 광고 등 보다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고 금전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메세나와는 엄연히 다른 기부행위를 가리킴

12) <http://le.cent.free.fr/html/3-1.html>

④ 장르별 창작 지원제도

· 조형예술

- 조형예술에 대한 지원은 공공구매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한편 조형예술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공구매의 대상작품은 물론 지원의 영역도 확대 중임
- 전통적인 조형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각, 회화, 판화, 사진, 시각예술 이외에도 패션, 광고, 공업디자인, 공공시설, 만화, 애니메이션, 비디오그래픽까지 조형예술에 포함함
- 조형예술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와 ‘조형예술위원회(Délégation aux Arts plastiques)’가 있으며 ‘국립조형예술센터’는 조형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국립조형예술센터는 1명의 대표와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FNAC과 FRAC 그리고 FIACRE를 통해서 조형예술 창작을 지원함

· 공연 지원정책

- 프랑스의 공연지원은 문화통신부 산하의 ‘예술창작국(Direction generale de la creation artistique)’에서 주로 담당하고 지역문화사무국을 통해서 지원함
- 프랑스에서 공연지원은 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보조금을 통한 공연단체 지원의 경우, 경상지원과 창작지원의 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나, 경상지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창작의 간접지원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됨
- 한편 ‘초연작품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는 ‘연극창작지원’제도와 연계해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공연되는 작품에 한해서 지원하는 제도임

· 음악활동 지원정책

- 음악활동에 대한 지원은 음악가와 타 분야의 예술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창작을 지원함
- 대상 예술가는 예술적으로 인정된 혹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젊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로 국한하며 이들의 활동영역 또한 프랑스 국내로 제한함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계획서가 있어야 하며 활동은 9개월 이상이어야 함
- 음악활동 지원은 ‘예술프로젝트’와 ‘문화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술프로젝트는 창작활동 중심으로 이뤄지며 문화프로젝트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활동을 말함

· 무용 지원정책

- 무용에 대한 지원은 무용전문 단체에 대한 지원과 시민들의 무용에 대한 접근성 지원을 위해 이뤄짐
- 무용에 대한 지원도 지역문화사무국을 통해서 추진됨
- 무용에 대한 창작지원은 단계별 지원이 이뤄지는데, 창작지원, 단체지원, 그리고 협약단체지원으로 구분함
- 창작지원은 무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창작을 하려고 할 때 1년 단위로 최소 10,000(1200만원)유로가 지원됨
- 단체지원은 이미 예술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곳으로 작품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단체 운영과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2년 단위로 연속적으로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소 25,000 유로 이상 지원이 가능함

- 한편 협약단체지원은 예술적 평가가 최상급으로 활동이 많은 단체에 지원되는 정책으로 3년간 지원이 가능하고 최소 80,000유로(1억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함
- 이들 지원에 대한 평가는 무용가, 무용창작자, 교육자, 공연관계자 등으로 전국단위에서 구성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가 시행됨

· 연극 지원정책

- 연극에 대한 지원으로는 희곡에 대한 지원과 번역에 대해 지원함
- 이에 대한 지원은 극작가 또는 번역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면 이들의 지원에 대한 평가는 20인으로 구성된 ‘연극계 대표자협의회’를 통해서 이뤄짐
- 희곡에 대한 지원은 공연제작을 위한 지원, 공연제작과 관계없이 희곡작가에 대해서 이뤄짐
- 공연제작을 위한 지원은 지원 이후 3년 이내에 제작이 이뤄져야 하며 최소 20회 이상 공연 필수

· 시청각(Audiovisuel) 및 뉴미디어 지원 프로그램

-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이미 1982년부터 시청각 및 뉴미디어를 현대 예술의 중요한 매체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음
- 1985년에는 영화·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전문회사인 ‘영화방송산업투자사(Sociétés de Financement pour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le)’와 ‘영화 및 문화산업 투자기관 (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을 정부가 주도해서 설립함
- 이들은 공공기관은 아닌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고 51%는 대부분 프랑스 금융권이 갖고 있음
- 이러한 기관에서는 프랑스 국립영상센터(CNC)¹³⁾에서 선정한 작품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프랑스 시민 누구나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한 지분만큼 세금을 공제해 줌
- 특히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신·멀티미디어 예술창작을 위한 조치(dispositif pour la Création Artistique Multimédia et Numérique, DICRéAM)’는 2002년에 신설, 뉴미디어 시대의 창작활동을 지원함
-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필요한 창작의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예술 활동의 제작 및 완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지원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면 제작에 필요한 전체 경비에 최대 50% 미만으로 분할 지원됨
- 창작에는 최대 70%까지 지원되며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환경콘텐츠 생산자들을 위한 공정한 보상 및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노력함

13) ‘국립영상센터(CNC)’ 1946년 설립된 프랑스 문화통신부 산하기관이다. 국립영상센터는 영화와 방송영상산업 진흥기금을 받아제작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화티켓세(Taxe sur les entrées en salles de spectacle cinématographique)는 10.72%, 방송사업자 납부금은 방송 매출 수익의 5.5%, VOD 사업자는 매출의 2%를 기금으로 내고 있다.

⑤ 전문화 및 연대기금(Fonds de Professionalisation et la Solidarité)

- ‘전문화 및 연대기금’은 예술가들이 실업급여가 종료되고 재가입이 힘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예술가들은 ‘전문화연대 급여(allocation de professionnalisation et de solidarité, APS)’와 ‘권리종료 후 급여(allocation de fin de droits, AFD)’를 고용지원센터(Pôle emploi)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문화 및 연대기금’은 예술가들이 노동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앵테르미탕’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술가들이 신청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전문화 및 연대기금은 실업수당과 같은 기간인 최대 243일 동안 받을 수 있음

6) 시사적 사례 혹은 프로그램

① Lyon: CitéCréation¹⁴⁾

- 1979년 벽화창작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예술가협동조합임
- 1986년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초기에는 예술가 위주로 구성되던 구성원들이 행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조합원이 참가하면서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게 됨
- 조합원인 예술가들이 공공과 민간에서 발주경쟁에 참가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얻는 벽화 제작 수익금과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Cité Création이 운영됨

② Strasbourg: Artenréel¹⁵⁾

- Artenréel은 프랑스 동쪽에 위치한 Strasbourg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창업 및 고용을 지원하는 창업협동조합임
- 이를 통해서 예술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원함
- Artenréel은 예술(art), 시간(temps), 현실(réel)을 뜻하며 Artenréel은 예술가들과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특히 예술가들이 취약한 회계와 재정, 행정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Artenréel은 예술가들의 수입 일부와 유럽연합 그리고 지방정부의 기금으로 재정을 충당함

③ Étaples-sur-Mer: QU(ART)IER résidence-mission à Étaples¹⁶⁾

- 미션 레지던스 프로그램 “QU(ART)IER”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현대미술의 창작과 향유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임
- 국적, 나이를 불문한 전문 시각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은 다른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달리, 입주 작가들이 사전에 제작한,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에게는 3개월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숙소와 지원금이 제공됨

14) <https://citecreation.fr/>

15) <http://artenreel.com/>

16) <https://aar.fr/actualites-professionnelles/actu/quartier/>

- 지역전문가와 미팅을 통해 지역과 입주 작가의 예술 활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함
- 창작지원금으로 1만 8천유로, 예술가 지원금 3,000유로 그리고 교통비와 주류비는 따로 지원됨
- 숙소는 시에서 따로 지급되며 이 프로그램에 지원은 국적이나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시각예술이나 조각을 하는 시각예술가로 프랑스어 회화가 가능하여야 함

④ Cristal Production¹⁷⁾

- Cristal Production는 1992년에 창립해서 20년 이상 운영되어 오다가 2012년에 ‘사회적 이익협동조합’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Cristal Production는 공연지원을 개인, 단체에게 해주고 있으나, 물론 창작활동과 제작 등도 직접하기도 하고 지원을 수행함
- Cristal Production은 순수예술공연이 갖는 시장에서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고용창출과 공익에 부합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확대에 노력 중임

⑤ Les Quinconces L' Espal¹⁸⁾

- ‘Les Quinconces L' Espal’는 프랑스 르망(Le Mans)에 위치한 공공극장이며 ‘Les Quinconces L'Espal’ 극장은 2014년에 자동차 경주로 유명한 르망지역에 문화를 함께 도시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서 설립됨
- 지방정부의 공공극장에 대한 건립 지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대형극장을 짓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나, 당시 르망 시장은 문화를 통한 시민들의 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임
- ‘Les Quinconces L' Espal’극장에서는 무용, 음악, 씨커스,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현대 예술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서 인구 약 14만의 르망 지역에 이 극장에만 약 5만 명의 관객이 찾아 왔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찾았는지를 알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Les Quinconces L' Espal’극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년 준비하고 이는 지역 주민 혹은 대중들이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것부터 예술성이 높은 작품까지 모두 다룸
- 특히 주목 되는 점은 ‘Les Quinconces L' Espal’극장은 예산 혹은 운영비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서 극장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 ‘Les Quinconces L' Espal’극장은 중앙정부인 문화통신부, 광영(région), 데파르트망, 코뮌까지 총4곳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음
- 이를 바탕으로 Les Quinconces L' Espal’극장은 지역주민들이 극장에 혹은 문화예술에 다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극장 운영의 주요 목적임
- 이를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극장에 왜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납득시키고 극장에 직접 가서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행함

17) <http://www.cristalprod.com/>

18) <http://quinconces-espal.com/>

7) 정책적 시사점

- 프랑스는 예술가를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들의 특수한 노동을 반영한 사회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술가들을 단순히 창작활동을 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을 노동활동으로 간주하며 예술창작활동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동시에 기본적인 생활환경 또는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문화예술창작 지원을 통해서 프랑스 시민들이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데, 프랑스 정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프랑스 시민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의 지원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
- 프랑스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다양한 기관 및 단체를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은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다양성을 기초로 한 지원방식으로 각 문화예술장르에 따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함
- 프랑스에서 문화예술창작 지원은 분야별 전문 기관 혹은 기금을 형성해서 운영되며, 이는 문화예술의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되기 때문이며 문화기관 혹은 단체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매우 적음
- 대부분의 문화예술 단체 혹은 기관은 재정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며 이러한 점은 한국의 문화예술단체 혹은 기관들의 재정적 독립성이 낮고 재정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적인 문화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비춰볼 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큼
- 프랑스의 문화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매우 드뭄
- 대부분의 지원은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이 되면 예술가의 역량과 창작에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크게 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가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예술가의 활동성임
-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가가 문화예술창작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큼
- 프랑스의 문화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임

- 프랑스의 예술창작을 위한 예술가 지원의 경우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별 기금을 바탕으로 각 기금에서 정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한 이유로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정당성 시비에 휩싸이기도 함
-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단기적인 측면에서 예술가가 문화예술창작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집’과 같은 곳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의 경력과 사회적 참여를 파악 할 수 있는데 있어서 매우 용이하게 사용될 것임
- 예술가들도 지속적인 혹은 발전적인 문화예술창작을 하기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1차적인 검정을 거친 후에 지원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정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점이 한국의 문화예술지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며 현재는 지역 문화예술가의 지원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고 문화예술가에 대한 자격의 근거로 불명확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의 문화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적 독립성이 갖춰져 있어야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혹은 독창성 강화가 가능함
- 한편 장기적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성과 세계성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화예술창작을 지원하는 것에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함
- 하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와 시범사업이 필요함
-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프랑스 문화정책은 기술발전, 사회문제, 문화·예술 환경을 융합시키려는 노력을 문화예술창작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정부부처가 프랑스의 ‘문화통신부’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이처럼 기존의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지원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게 기술, 사회,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IT강국인 우리나라도 이제는 ‘Cultural Technology’와 ‘Information Technology’를 통합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지원을 고려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음

2. 일본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시사점

1) 일본 문화예술지원제도의 개요와 동향 분석

- 일본의 문화예술지원제도는 일본 문화청의 기본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시책사업에서 대략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2017년(平成29년) 일본 문화청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我が国の文化政策>에는 일본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기본법’에 의거해 마련된다고 밝히고 있음

○ 일본의 문화예술기본법

- 일본의 문화예술기본법은 2001년(平成13년) 11월에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기초하고 있음
- 이 법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주적 활동 촉진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꾀하며 마음이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활력 있는 사회 실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은 2017년 6월, ‘문화예술기본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저출산 고령화와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일본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문화예술입국(文化芸術立国)’의 실현을 구체화하려는 목표로 법 개정이 진행되어 개정됨
- 개정의 취지를 보면, 문화예술의 진흥 뿐 아니라, 관광, 마을 만들기, 국제교류, 복지, 교육, 산업 등의 분야를 문화예술과의 관련 하에 새로운 법률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화예술로 인해 생성되는 다양한 가치를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창조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
- 문화예술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예술가 등의 자주성 존중’, ‘국민의 감상·참가·창조 환경 정비’, ‘자국과 세계 문화예술의 발전’, ‘다양한 문화예술의 보호와 발전’,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발전’, ‘국제적인 교류와 공헌의 추진’,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과의 상호연대’, ‘폭넓게 국민의 의견 반영’, ‘문화예술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가치를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창조에 활용’, ‘관광, 마을 만들기, 국제교류, 복지, 교육, 산업 등 관련분야의 시책과 연대’를 추구하는 것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추진되고 있음
 - 문화예술 각 분야의 진흥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의 진흥, 예술제 등 지원
 - 국제문화교류 추진(예술제 개최 및 다국어 대응지원, 국제기관 인재교련 등)
 - 예술가 등의 양성 및 확보(기획제작자, 기술자 등 인재육성 지원 등)
 - 국어(일본어) 교육의 충실
 - 저작권 등의 보호와 이용
 - 고령자,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 활동 충실
 -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 민간의 지원활동의 활성화 (문화예술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련된 주요시책에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예술의 수준향상에 견인차가 될 창조활동을 중점 지원하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창조를 지원
 - 일본과 해외를 잇는 다양한 문화교류와 분야의 특수성을 배려한 전략적 아이디어로 창조 활동 추진
 - 지역의 다양한 주제들에 의한 문화정책 입안

- 국내외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지역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 지원
 - 문화예술창조도시의 전국 네트워크 충실·강화, 관광·산업진흥과의 연대 지원
 - 일본판 아트카운실 (Art Council) 운영
 - 장애인의 예술 활동 진흥
 -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를 시작으로 ‘생활문화’ 진흥
 - 전국의 공연이나 문화예술 이벤트 등 정보발신
 -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 협력요청, 민간기업 등의 활동 촉진
- 문화예술기본법을 토대로 일본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향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예술가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이 아닌, 순수한 창조활동에 중점 지원
 - 일반적 범주의 예술에서 확장, 전통예술과 창조산업 등으로 범위 확대 (전통예술가, 크리에이터, 기획 및 제작 인력への 지원과 육성 진행)
 - 마을 만들기 등 지역발전과의 연계
 -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아트카운실’ 설치 등

2) 창작지원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적 쟁점들

○ 최근 일본의 창작지원제도에서는 ‘창작행위 자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창조의 주체인 인재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창작지원 중에서는 특히, 무대예술 활동과 미디어예술(영화 포함)에 대한 지원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재육성 차원의 지원 강화
 - 예술가지원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된 ‘풍성한 문화예술 창조·활용과 인재육성’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인재육성 예산은 ‘신진예술가의 해외연수제도’ ‘차세대 문화를 창조할 신진예술가육성사업’ ‘대학을 활용한 문화예술추진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신진예술가의 해외연수제도’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각 분야의 신진예술가에게 해외에서 실천적으로 연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 연수, 2년 연수, 3년 연수, 특별연수(80일), 고교생 연수(350일) 외에 2014년부터 단기연수(20~40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음
 - 신진예술가 등이 기초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필요한 무대 등의 실제적 기회나 넓은 시야, 넓은 견문, 넓은 분야에 관련한 지식을 얻게 하는 장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문화를 창조할 신진예술가육성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술계 대학이 보유한 자원(교원, 교육연구 기능, 자료 등)을 활용해 무대예술, 미술 등과 관계된 아트매니지먼트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대학을 활용한 문화예술추진사업’이 시행되고 있기도 함
- 무대예술의 창조활동 지원 강화
 - 일본은 무대예술 창조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예술단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많은 국민이 우수한 무대예술 감상기회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무대예술 창조활동활성화사업’과 ‘전략적 예술문화창조추진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무대예술창조활동활성화사업’은 우수한 무대예술공연의 감상기회 충실, 또는 국민이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자체기획 공연의 입장료 수입에 상응하는 지원 또는 공연 전 창작 관련 경비(연출비, 각본료, 연습장 대여료 등)를 지원하며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전략적 예술문화창조추진사업’은 실제 공연예술에 관련된 새로운 관객층 개척과 육성, 경영기반 강화 등 일본의 예술문화진흥을 위한 과제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예술단체 등의 기획제안에 대한 공모·심사를 통해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능과 대중예능 분야를 지원하는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에 전문가를 활용한 심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미디어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 일본은 콘텐츠산업과 관광 진흥, 국제문화교류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 예술분야이기 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미디어아트 등 미디어예술 진흥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창조·발신 지원’과 ‘인재육성지원’을 실시 중이며 영화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음
 - 미디어예술의 창조·발신 지원사업으로는 미디어예술제 개최, 미디어예술 연대촉진 사업, 애니메이션 영화제작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미디어예술제 개최 사업은 문화청 주최로 1998년부터 시작된 ‘문화청미디어예술제’를 통해 우수한 미디어예술 작품을 소개, 발표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아트’,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만화’ 총 4부문으로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해외 미디어예술제 참가 사업’ ‘미디어예술제 지방전’을 추진하여 국내외에 일본의 우수한 미디어예술을 알리고 있음
 - 미디어예술 연대촉진 사업은 일본에서 창작된 미디어예술 작품의 보존·활용을 위해 ‘미디어예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2016년 말 현재, 만화 415,000권, 애니메이션 10,000점, 게임 38,000점, 미디어아트 관련사업 10,000여 건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한편, 미디어예술 분야의 산·학·관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미디어예술 분야의 문화자원 운용을 폭넓게 꾀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 영화제작 지원사업은 우수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제작지원과 국제공동제작을 지원함
 - 이와 함께 미디어예술 인재육성 지원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데, 차세대 미디어예술을 담당할 크리에이터의 수준향상과 육성 환경 정비를 위해 젊은 크리에이터들의 창작활동 지원, 해외 우수 크리에이터 초청, 미디어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는 미디어예술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과 애니메이션 분야의 제작 및 스태프로 젊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애니메이션 제작현장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젊은 애니메이터 육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일본영화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 미디어예술과 함께 일본영화의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영화의 창조, 교류, 발신’, ‘젊은 영화작가 등의 육성’, ‘일본 영화 필름의 보존·계승’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진행하고 있음
 - 일본영화의 창조, 교류, 발신을 위해 일본영화 제작지원, 로케이션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 문화영화상 제정 및 수상작 상영, 해외영화제 출품 등을 지원하며 전국영화회의 개최, 아시아 지역의 일본영화 특별상영사업, 일본영화정보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단편영화 워크숍, 실제 장편영화 제작 등을 통해 젊은 영화작가를 육성하는 ‘단편영화작품지원 사업’과 영화제작의 각 과정을 담당할 전문성 높은 인재육성을 위해 제작현장에서 학생들의 인턴십을 진행하는 ‘영화관계단체 등의 인재육성사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미래의 예술창작과 소비의 주체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는 지원도 정책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들이 무대예술이나 전통예술을 실제로 체험하고 감상하면서 문화와 예술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회공연사업’과 ‘예술가 파견사업’ 등을 실시하는데,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함
- 문화청이 선정한 일류 문화예술단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실제 예술 공연을 진행하고, 감상지도 및 실기 지도 등의 워크숍도 실시하는 동시에 합창, 오케스트라, 음악극, 아동극,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가부키 등을 무대에 올리는 순회공연사업을 지원, 운영 중임
- 학교가 독자적으로 선정한 개인 또는 예술가 그룹이 강좌를 열거나 기술지도, 실기지도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음악, 대중예능, 문학, 연극, 미술, 생활문화, 무용, 전통예능, 미디어예술 등의 분야의 예술가를 학교로 파견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술가파견사업을 운영 중임
-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사업: 예술가 개인이나 소규모 예술가그룹을 학교에 파견해 표현수법을 이용한 계획적, 계속적 워크숍을 진행하며, 음악, 대중예능, 문학, 연극, 미술, 생활문화, 무용, 전통예능, 미디어예술 등의 분야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사업을 운영 중임
-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민속예능, 공예기술, 일본음악, 일본무용, 화도, 다도 등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관련 활동을 통해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전통문화교실 지원사업(伝統文化親子教室事業)’을 지원하여 운영 중임

3) 중앙정부와 지자체 별 운영 형태 및 현황

○ 일본의 예술지원정책 운영방식과 운영형태

- 일본은 문화청의 주도하에 정책이 수립되며 실질적인 집행은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국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 지방지자체는 지역별로 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며 이 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지원사업의 공모와 선정, 집행을 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보다 효과적인 문화예술지원을 위해 ‘일본관 아트카운실’ 제도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지역별로 아트카운실 설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정부차원의 문화예술지원 지원

- 정부차원의 문화예술지원은 문부과학성 소관 행정기관인 문화청의 문화부 예술문화과가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는 곳은 문화청 장관 관방심의관 직속의 정책과에서 담당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과 지원업무는 예술문화과 산하의 지원추진실과 문화활동진흥실이 맡고 있음
- 문화청이 편성한 문화예술의 진흥, 지원 명목의 예산 중 상당액은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를 통해 집행됨
- 일본예술문화진흥회를 통해 집행되는 예산은 대부분 국립극장,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등의 시설운영 등의 필요 자금 및 예술진흥지원사업의 공모 등에 활용됨
- 문화청은 문화행정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며 실질적인 업무는 주로 일본예술문화진흥회가 위탁해 수행하는 구조이며 문화청과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중앙정부와 민간출자를 바탕으로 1990년, 조성된 ‘예술문화진흥기금’의 운영 또한 일본예술문화진흥회가 맡고 있음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

-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청은 ‘문화예술창조활용 플랫폼 형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진적 문화예술활용거점형성사업’, ‘문화예술창조거점형성사업’, ‘지역의 문화시설추진체제 구축’ 등 3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함
- 또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해 활용하고 예술계와 산·학·관이 연대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거점을 형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며 동시에 전문인재 육성이나 일본문화예술의 국내외 발신 등을 관계기관들과 연대해 지원하기도 하는 사업이기도 함
- 공공단체가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해 예술단체나 대학 또는 사업계 등과 연대해 실행하는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생사회의 실현에 관련된 선진적 방안을 지원하는 사업인 선진적 문화예술창조활용거점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현대아트, 실연예술, 미디어예술, 공예와 생활문화, 공생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사업, 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예술, 산·학·관과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며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고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미디어예술, 장애인예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창조거점형성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함
-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시설추진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문화사업의 기획, 실시체제의 구축, 강화 등에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도 함

○ 일본의 지자체 문화재단과 일본판 아트카운실

- 일본에는 지방공공단체의 출자와 출원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많으며 지역의 예술가지원은 문화 관련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지자체 문화진흥재단’이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총무성이 발표한 <제3섹터 등의 상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공공단체가 출자(출원 포함)한 공익재단은 1,912곳에 이르는데, 이 중 ‘문화·교육’을 업무분야로 하는 단체는 724곳인 것으로 파악됨
- 지자체 문화진흥재단의 주요 업무는 문화시설의 지정관리업무가 중심이며 문화예술가나 단체에 대한 지원(보조금)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들에게 대해 외국의 아트카운실과 유사한 조직과 역할이 기대하였으나, 아트카운실다운 기능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0년 이후, 일본판 아트카운실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문화진흥회를 중심축으로 하는 일본판 아트카운실이 설치됨
-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문화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성에 관한 새로운 심사, 평가 등의 업무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일본판 아트카운실’의 본격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판 아트카운실의 핵심은 ‘PDPO’를 활용한 심사체제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PD(실무경력이 있는 고위책임자)와 PO(실무경력이 있는 책임자)를 투입해 기금조성 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최후 평가단계까지 일관되게 매니지먼트하는 체제이며 공정한 기금지원 및 조성금 대상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임
- 일본예술문화진흥회와 같은 국가 중심의 아트카운실 외에도 일본에서는 ‘지역판 아트카운실’ 설치가 활발함
- 2012년, 도쿄도가 ‘아트카운실 도쿄’를 (공익재단)도쿄역사문화재단 내에 설치했고 같은 해 8월에 오키나와현이 ‘오키나와판 아트카운실’을, 2013년 7월에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공동 설치한 오사카부시문화진흥회의의 전문부회로서 ‘오사카 아트카운실’이 활동을 개시함

[표 23] 일본의 지역별 아트카운실 현황 및 내용

요코하마시 [横浜市]	<p>① 추진담당: 요코하마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창조도시추진부 창조도시추진과</p> <p>② 2016년 조성금: 1,300만 엔(조성사무비 포함)</p> <p>③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창조도시로서 추진해 왔던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등의 축적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이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살린 '매력 넘치는 마을만들기' 시너지 효과 추구 - 요코하마의 문화플랫폼 구축
오이타현 [大分県]	<p>① 추진담당: 공익재단법인 오이타현 예술문화스포츠진흥재단 아트레보래터리실</p> <p>② 2016년 조성금: 382.5만 엔</p> <p>③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문화진흥시책의 평가방법과 민간자금 도입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실시 - 현이 실시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 - 오이타현립예술문화단기대학 아트매니지먼트 강좌와 연대한 인재육성 등
시즈오카현 [静岡県]	<p>① 추진담당: 시즈오카현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p> <p>② 2016년 조성금: 743.8만 엔</p> <p>③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카운실적인 기능과 구조로 정비 중 - 문화프로그램 담당자나 참가희망자에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통한 조언이나 지원 제공 - 공모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금 지출 - 문화프로그램 정보 발신 - 문화자원,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연구
오사카부 [大阪府]	<p>① 추진담당: 오사카부시 문화진흥회의 아트카운실부회 (행정과 분리해, 전문가가 평가조사심사기획을 진행하기 위해 2013년 설립)</p> <p>② 2016년 조성금: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공모형 조성금의 심사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사카부 예술문화진흥보조금 연간 약 920만 엔 - 오사카부 '어린이 퍼포머사업' 조성금 연간 330만 엔 - 오사카시 예술활동진흥사업 보조금 연간 6,200만 엔 <p>③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공모형 지원사업 심사채택 등의 시찰 -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문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제안 - 새로운 문화사업의 제안(2015년부터 '예술문화매력육성 프로젝트'로 진행) - 강좌 및 미팅의 기획과 실행(아트매니저 육성강좌, U40 미팅 등) - 조사 실시('예술문화매력육성 프로젝트'의 조사, 연극상황 조사 등)

(자료 출처 : 太下義之, 自治体文化財団に関する研究, 日本におけるアートカウンシル的組織の現状と課題, 静岡文化芸術大学研究紀要, Vol.17, 2016에서 부분 발췌 정리)

4) 재정 조달 및 확충방법

- 일본정부는 매년 편성하는 문화청 예산을 통한 지원 외에 다양한 기금의 운용, 민간기업의 메세나 활동 장려, 펀드 조성 등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재정적 조달을 도모하여 예술문화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예술문화진흥기금 운영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0년(平成2년) 설치된 기금이며 정부의 출자금 약 541억 엔과 민간 자금 약 132억 엔을 모아 총 673억 엔을 자본금으로 기금을 운용됨
- 운용 수익으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창조·보급 활동’,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문화 관련 단체가 행하는 문화 진흥·보급 활동’을 지원하며 때에 따라 기부금 조성을 통해 기금 확충을 도모하기도 함
- 예술문화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창조·보급 활동에 지원사업
 - ① 오케스트라, 오페라, 실내악, 합창, 발레, 현대무용, 연극 등 무대예술의 공연활동
 - ② 분라쿠(文楽), 가부키(歌舞伎), 노우가쿠(能楽), 호우가쿠(邦楽), 호우부(邦舞) 등 전통예능 공개 활동
 - ③ 라쿠고(落語), 코우담(講談), 로우쿄쿠(浪曲), 만자이(漫才), 기게이(技芸) 등 대중예능 공연 활동
 - ④ 미술 전시활동
 - ⑤ 국내영화제 등의 활동
 - ⑥ 특정 예술분야에 속하지 않는 공연 및 전시활동
 -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① 문화회관, 미술관 등 지역 문화시설에서 열리는 공연, 전시 외 활동
 - ② 역사적 마을, 거리, 문화적 경관의 보존·활용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세미나 등의 개최, 자료 수집·작성, 계발에 의한 보존·활용 활동
 - ③ 민속 문화재의 공개, 광역적 교류, 부활·복원에 의한 전승, 기록 작성을 통한 보존·활용 등의 활동
 - 문화 관련 단체가 행하는 문화 진흥·보급 활동
 - ① 아마추어 문화단체가 행하는 공연, 전시 그 외의 문화 활동
 - ② 전통공예기술, 문화재보존기술의 보존전승, 공개 활용, 기록 작성에 따른 보존·활용활동과 쇠퇴하는 전통공예기술의 복원활동

[표 24] 2016년(平成28년) 예술문화진흥기금 지원금 교부현황

(단위 : 백만 엔)

지원대상 분야	응모건수	교부건수	지원금 교부액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창조·보급활동	784 (770)	401 (345)	716 (702)
지역의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356 (349)	193 (204)	234 (237)
문화 관련 단체가 행하는 문화의 진흥·보급활동	196 (202)	124 (109)	94 (91)

* ()는 2015년(平成27년)도 지원금 교부 현황 (자료출처 : 我が国の文化政策 平成29年度, 文化庁, 2017)

○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운영

- 1972년, 외무성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2003년, 독립행정법인이 된 국제교류기금은 ‘문화’, ‘언어’, ‘대화’를 통해 일본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며 ‘문화예술교류’, ‘일본어교육’, ‘일본연구, 지적교류’ 등 3가지의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표 25] 국제교류기금의 문화예술교류 부문 지원사업

해외파견지원	- 일본의 예술과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무대공연(연극, 음악, 무용, 민속예능)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적 공헌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강연, 발표, 워크숍 등 문화예술사업 지원 - 해외파견 예술가 또는 일본문화 전문가의 해외경비 일부 지원 (왕복항공료, 화물수송비 등)
퍼포밍 아트 재팬 (북미)	-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본의 무대예술공연 지원 - 순회공연 또는 공동제작 경비 일부를 지원 - 현지 제작사 및 공연관계단체가 신청
퍼포밍 아트 재팬 (유럽)	- 유럽에서 진행되는 일본의 무대예술공연 지원 - 순회공연 또는 공동제작 경비 일부를 지원 - 현지 제작사 및 공연관계단체가 신청
해외전시지원	- 일본미술 또는 문화 소개 목적으로 열리는 해외전시 경비 일부 지원 - 해외의 미술관과 박물관 등 단체가 신청 - 작품수송비, 도록제작비, 작가와 전문가 여비 지원
미국/유럽 뮤지엄 기반정비 지원	- 일본 미술 컬렉션을 보유한 유럽과 미국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대상 - 보유한 일본미술 컬렉션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번역출판 지원	- 일본 이해 및 일본 연구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작된 일본어 도서 - 해당 도서의 번역출판을 담당할 출판사 지원 - 번역 경비 또는 출판 경비의 일부 지원

(자료 출처 : Japan Foundation 누리집 www.jpf.go.jp 발췌 정리)

○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메세나 활동

- 민간기업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회사의 공헌의식을 높이기 위해 예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부를 하며 이와 같은 메세나(예술, 문화진흥에 의한 사회창조) 활동은 경제와 문화 양면에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기업 자체적으로 문화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술문화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해 인재를 양성하거나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도 진행되고 있음
- 최근에는 ‘지역활성화’ ‘차세대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들도 메세나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각 지역의 문화진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민간기업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해 놓았고 1990년에는 기업의 메세나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인 (공사)기업메세나협의회를 설립해 운영 중임
- 기업메세나협의회가 발간한 <기업·기업재단의 메세나 활동실태조사(2017년도)>에 따르면, 1회사당 평균 약 5.4건의 메세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사 평균 활동비는 9,710만 엔이며 기업재단을 통해 진행되는 메세나 활동은 1사 평균 3.4건, 활동비는 1재단 당 평균 3억 4,048만 엔으로 집계됨 (문화청 <我が国の文化政策>, p.14에서 재인용)
- 민간 기부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과 더불어 ‘조성인정제도’를 운영하며 예술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 활동에 대한 조성신청을 한 뒤 ‘조성인정’을 받으면 기업메세나협의회에 기부된 돈을 조성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2016년에는 81건의 예술문화 활동이 조성인정을 받았고 기부건수는 337건, 기부총액은 62,760,639엔에 이릅니다

○ 예술문화 펀드 조성

- 일본은 예술문화 펀드 조성 또한 활발하며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조성하는 ‘GB Fund’와 ‘2021 Arts Fund’가 대표적인 예라 하겠음
- GB Fund(예술·문화에 의한 재해부흥지원 펀드)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설치된 펀드로서 예술(G)과 문화(B)를 통해 재해를 이겨내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중인 기금임
- 2021 Arts Fund(예술·문화에 의한 사회창조 펀드)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부터 그간 이어온 문화 창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문화진흥 또는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창조, 예술과 문화를 통한 국제교류 및 일본문화의 국제발신, 예술문화를 통한 사회창조를 담당할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한 펀드이며 기부자의 의향에 따른 목적별 펀드를 설치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기부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음

○ 지자체 문화재단의 자금조달

-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이 발표한 <2012년 예술경영통계>에 따르면, 지자체문화재단의 수입은 기본자산운용이익, 측정자산(재산) 운용이익, 사업수입, 지정관리료, 공적지원과 민간지원을 아우른 보조금/기금, 기부금, 회비, 기타 등으로 구성됨
-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정관리료이며 전체 수입에서 지정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6.3% 선이며 사업수입(26.9%), 보조금/기금(12.4%)이 뒤를 잇고 있음
- 보조금/기금에는 공적지원(10.5%)의 비중이 크며 주로 지방공공단체(지방정부)의 예산지원(9.6%)에 의존하며, 국가/문화청 기금 등이 공적지원에 포함되고 있는 반면, 기금조성재단과 일반 기업에서 나오는 민간지원의 비율은 2% 미만이며 법인체와 개인의 기부금 또한 0.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5) 지원제도의 유형별 분류 및 특징

- 일본은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재단법인을 통해 예술지원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음
- 지자체 문화재단은 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또는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창작·보급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민간 문화재단은 설립목적, 모기업의 지향점 등에 부합하는 특정 장르나 대상, 지역 등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음 (* 아래의 내용은 공익재단법인 조성 재단센터(The Japan Foundation Center) 누리집(www.jfc.or.jp)에 게재된 문화·예술관련 지원사업(정부, 민간)에서 주목할 만한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임)

① 창작지원

- 지자체문화재단, 민간문화재단 모두 장르의 구분을 두지 않고 폭넓게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지자체문화재단의 경우, 지원금의 상한선을 낮게 책정해 장르별로 고루 분배하는 형태의 지원사업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음
- 민간문화재단의 경우는 재단의 특성에 따라 장르적 특성을 두는 경우도 있음

- 지원의 조건에 결과물(전시회/음악회/공연)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예술가들에게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작가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공모가 많음
- 창작지원제도 중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주로 청년작가 지원에 한정되며 지원을 위한 첫 응모시의 연령이 '40세 이하'를 '청년'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음
- 지원금 상한액은 20~100만 엔 사이에서 형성되며 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 공모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10~30만 엔(1년) 수준에 머뭄
 - 전문예술인/전문예술단체 지원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season 펠로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세종문화재단(セゾン文化財団)의 현대연극 및 무용 창조 활동 지원사업 - 펠로십에 선발되면, 해당기간동안 활동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워크숍이나 연습을 위해 재단이 운영하는 모리시타 스튜디오를 우선적으로 빌려 사용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주니어 펠로는 연간 100만 엔(2년 연속 가능), 시니어 펠로는 연간 250~300만 엔(3년 연속 가능) - 주니어 펠로는 일본에 활동거점을 둔 극작가나 연출가로, 3작품 이상 공연실적이 있어야 함 - 시니어 펠로는 동일한 조건에 덧붙여 세종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희곡상, 연출가상 등 수상경력, 해외 저명한 페스티벌(메인 부문)과 극장 등의 초빙 이력 필수 	<p>현대연극, 무용계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극작가/연출가</p> <p>연령제한 주니어 35세 ↓ 시니어 45세 ↓</p>
마츠오학술진흥재단 현악 사중주단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마츠오학술진흥재단(松尾学術振興財団)은 음악, 특히 현악 사중주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 대상은 전문 현악사중주단으로, 멤버의 평균연령이 35세 미만에 한함 - 1년에 1~2팀을 선발해 1년간 지원하며, 지원금 총액은 500만 엔 	<p>현역 현악 사중주단</p>
가고시마현문화진흥 재단 예술문화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가고시마현문화진흥재단(鹿児島県文化振興財団)이 가고시마현 내에 소재지 또는 활동 거점을 둔 현역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장르 불문이며 장기연속 실행이 가능한, 자체기획으로 실시되는 문화 예술사업(공연, 전시 등), 예술문화단체의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사업 - 가고시마현의 전통예능 보급에 도움이 되는 사업, 어린이들의 예술문화 활동의 촉진하는 사업, 예술문화의 보급계몽에 충실한 사업에 지원 - 조성금은 조성대상 경비의 총액(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다른 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입장료 등에 상당하는 비용 제외)의 1/2 이내. 1단체 당 상한액은 150만 엔, 하한액은 5만 엔 	<p>가고시마 현에 소재지/거점을 둔 예술단체</p>

- 청년작가지원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고토기념문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고토기념문화재단(五島記念文化財団)의 신인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 선정시 상장과 상금 50만 엔, 해외연수(1년)시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보조, 해외연수 후 성과발표에 따른 지원금 제공 	일본 국적의 40세 이하 청년작가
크리에이티브 칠드런 펠로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아츠코미션·요코하마(アーツコミッション・ヨコハマ)의 차세대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 - 미술, 무대예술 분야의 미술가, 극작가, 연출가, 댄서 등이 대상이며, 요코하마에 거주, 재학 중이거나 요코하마를 활동거점으로 삼는 예술가와 크리에이터에 한함 -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엔 이내이며, 아티스트 니즈에 맞는 멘토/서포터를 소개하고 인맥 만들기를 돕는 '인적지원 제공', 지원 기간 중 재단주최로 개최되는 전시나 공연의 '감상기회 제공'은 물론, 재단이 발행하는 웹진 <창조도시요코하마>와 재단의 광고 톨을 활용한 '광고지원 제공' 진행 	최초 응모시점 39세 이하
젊은 예술가의 음악제, 미술전람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아사히신문문화재단(朝日新聞文化財団)은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젊은 예술가와 정평 있는 예술가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상 분야는 ①음악 분야: 클래식 음악, 발레, 오페라, 일본 전통음악, 노, 분라구, 가부키 등의 공연 ②미술 분야: 회화, 조각, 영상, 사진 등 미술작품 전람회이며, 다음의 3조건을 충족해야 함 - .예술을 통한 계몽·보급적 의의가 있을 것, 예술가의 발표 기회를 넓혀주는 사업일 것, 지역의 예술문화향상에 보탬이 될 것 - 지원금은 10만~100만 엔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주최하는 예술제 등에 출연/출전하는 그룹/개인

② 장르별 지원

- 공모형 지원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장르를 형평성 있게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지원하는 재단의 특성이나 지향점을 드러내는 경우 특정 장르를 지정해 공모하기도 함
- 대부분의 지원은 일반인들의 문화향유를 기본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창작'과 '보급' 모두를 '예술문화 창조'의 범주 안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문화향유와 감상/체험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예술정책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일본의 예술지원사례 중에는 특히 무대예술에 대한 지원이 많으며 클래식 공연이나 연주자를 위한 공모가 다수를 차지하고 일본의 전통예능, 무용 등에 대한 지원도 발견되었음
- 일반적으로 지원의 대상이 되어온 미술/음악 외에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디어예술, 미래형 창조산업과 관련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원하는 등 특색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음이 눈길을 끄

－ 시각예술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미술/음악을 중심으로 한 예술문화와 과학기술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카오예술과학재단(花王芸術科学財団)이 진행하는 지원사업 - 미술전람회 지원: 일본의 미술관, 박물관 또는 단체가 기획·개최하는 회화, 판화, 조각 등의 전람회 지원, 기획성이 풍부하고, 예술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전시에 한하며 1건당 100만 엔이 상한선이고 1년 지원함 - 미술연구 지원: 미술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 성과의 출판을 지원하며 연구자 지원과 함께 연구 성과를 미술계와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고 1년에 2건 정도 선정하며 지원금 상한선은 100만 엔, 지원금 결정 이후 2년 내에 출판해야 함 <p>※ 음악분야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공연/음악연구를 지원</p>	

－ 공연/무대예술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오페라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고토기념문화재단(五島記念文化財団)이 진행 - 일본 오페라단체 등이 올리는 일본 내 공연, 일본인 원작 작품, 일본인의 창작 오페라 작품을 대상으로 함 - 도의 예술적 수준을 지닌 작품으로, 스케줄 또는 기획의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연에 한함 - 일한 연출로 3년 이상 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1단체 당 50~100만 엔 지원 	오페라 공연단체
전자기술을 활용한 콘서트 및 음악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카케하시예술문화진흥재단(かけはし芸術文化振興財団)의 창작지원제도 - ‘전자기술을 활용한 콘서트 또는 음악연구’를 대상으로 단체/개인을 막론하고 전자악기를 활용한 콘서트나 음악연구, 해외음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교류 등을 지원 - 공연활동지원: 전자기술을 폭 넓게 응용한 예술적 활동(장르 불문)으로, 전자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는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창작 또는 기획 - 예술적 수준이 높고 지역문화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계몽적 의의를 지니며, 젊은 예술가에게 발표 기회를 주는 활동 - 강연회 지원: 전자기술이나 전자악기를 활용한 음악 보급 또는 진흥을 목적으로 한 강연회, 심포지움, 세미나 등에 지원 - 조사, 연구 지원: 전자기술을 활용한 음악표현법, 음악교육방법에 관한 조사와 연구 지원 - 국제교류 지원: 국내연주자의 해외공연, 해외연주자의 초청 등에 지원하며 지원금은 1건당 10만~200만 엔 	전자기술을 활용한 음악예술 활동

－ 미디어예술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일본영화 해외전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청 일본영화 해외상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재단법인 유니재팬(ユニジャパン)이 해외영화제에 출품할 일본영화(제작자)의 자막과 항공료 등 지원하는 사업 - 세계3대영화제(칸느/베니스/베를린)장편영화부문 초대작을 우선 지원, 외국어 자막제작 또는 영화제 참석에 따른 직접지출비의 일부 지원 - 지원금은 ① 법인체신청자: 외국어 자막 제작비 상한액70만 엔, 해외항공비 상한액 40만 엔 ② 법인격신청자: 3대영화제 출품 시, 외국어제작비와 영화제작자 항공비 상한액 300만 엔, 그 외 영화제는 150만 엔 ③ 개인신청자: 외국어 자막 제작비 상한액 70만 엔, 항공료 20만 엔 	영화관련 법인체/법인격/개 인

－ 창조산업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크리에이티브 인클루전 활동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아트커미션 요코하마(アーツコミッション・ヨコハマ)가 진행하는 창조산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 요코하마 관광국이 주재하는 ‘예술액션사업’의 테마와 일체성을 지닌 아티스트, 크리에이티브가 기업, NPO 등과 협력해 진행하는 활동, 요코하마 시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함 - 지원금은 1년당 50만~200만 엔 선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 지역의 전통문화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지역문화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전국세리사공영회문화재단(全国税理士共栄会文化財団)이 진행하는 지역의 예술활동, 전통예능, 전통공예기술의 보존 및 후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 지원사업 - 연2회 추천제 공모로 예술가, 전통예능인, 단체 등을 선발함 - 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100만 엔 	전통예능, 전통공예 부문 개인 및 단체

③ 공간-거점 지원

- 공간-거점 지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좋은 예술가의 지역유치에 있으며 일정기간 머무르는 개념이 강했던 AIR(Artist in Residence) 개념에서 진일보해 예술가의 정착을 통한 지역발전, 즉 마을 만들기와의 연계해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과 입주희망 예술가를 연결해주는 매칭사업이 활발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월세, 건물 수리비 등을 지원해 예술가의 정착을 돕기도 함
- 활동 근거지를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주비용을 제공하거나, 사무실개설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의 사업체들이 보유한 공용 공간(체육관, 홀 등)을 예술가들의 연습장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예술가의 창업지원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시행되기도 함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모노쓰꾸리작가 창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바라키현 카사마시(笠間市)가 진행하는 예술인 정착지원 보조금 사업 - 모노쓰꾸리(물건만들기) 작가의 이주와 정주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며 예술 문화진흥에 의한 상공업 활성화와 마을만들기가 목적임 - 지원내용 ①거주 또는 공방의 월세 보조사업: 거주 또는 공방 임대해 필요한 경비(보증금 제외), 월 1만 엔을 최대 1년간 보조 ②건물 또는 토지가 딸린 건물의 구입 보조 사업: 시내에 거주 또는 공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또는 토지가 딸린 건물을 취득할 때 필요한 경비로, 한도액은 50만 엔(1회 한) ③창작시설수선 보조사업: 공방 수선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한도액은 50만 엔(1회 한) ④설비구입 보조사업: 창작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구매할 때 드는 경비 지원, 한도액은 30만 엔(1회 한) 	카사마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아티스트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를 위한 사무실 등 개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아트커미션 요코하마가 진행하는 예술가, 크리에이터 등의 활동 거점 지원제도. 요코하마 도심 임해부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예술가/크리에이터가 부동산을 임대해 스튜디오나 아틀리에, 사무실 등을 개설할 때 지원금을 교부함 - 미술, 무대예술, 음악 등의 '신진 아티스트'와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 디자인 분야의 크리에이터를 주대상으로 하며 아티스트나 디자이너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크리에이터 등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작업실, 스튜디오, 발표의 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월임대료 6개월분(단, 1㎡ 당 3,000엔 이하) 또는 이전료의 일부, 요코하마시 내에서 이전한 경우 50만 엔, 시외에서 이전한 경우 200만 엔이 상한선 	<p>개인/단체.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디렉터 등.</p> <p>신진예술가는 45세 이하</p>
토요타 창조공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토요타자동차가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아티스트 창작활동을 위해 회사 시설(체육관 등)을 예술가들의 창조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연습장 확보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예술가와 사회(회사)와의 접점 마련을 목적으로 함 	무대공연 예술가

④ 축제지원

- 축제적 성격을 지닌 세계적 규모의 국제행사는 물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을 촉진하는 다양한 축제형태의 행사에 지원이 이루어짐
- 자체 기획해 운영하는 축제에 대한 지원 사례도 있고 타 축제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문화축제(영화제 등)에 참가해 일본과 일본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교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는 지원제도들도 존재함
- 지역 만들기과 연계, 지역의 특성을 부각하고 지역을 외부에 알리는 동시에 지역민의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마츠리 형태의 축제를 지원하기도 함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도쿄국제 영화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재팬에서 진행하는 축제지원 프로그램 - 매년 개최되는 도쿄국제영화제의 경쟁부문 우수작품 7점, 아시아의 미래부문 1점, 일본영화 스플래쉬 부문 2점을 지원 - 수상작 후보에 오른 작품의 감독에게는 여행비와 체재비도 지원 - 해외영화제에 출품하는 일본작품의 자막제작비와 해외항공료, 선전용 소재 제작비의 일부도 부담하며 1년 총 지원금은 2,370만 엔 	-
다치가와 잇타이 음악축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법인 다치가와시 지역문화진흥재단(立川市地域文化振興財団)의 지역축제 지원사업 - 다치가와 시내의 광장, 점포 앞 등에서 일제히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는 거리 음악축제 <다치가와 잇타이 음악축제 立川いったい音楽まつり>를 지원 - 대중음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축제는 다치가와 시와 인근 지역 뮤지션들의 발표의 장이기도 하며 타치가와 시민의 특색 있는 지역 마츠리로 자리잡고 있음 	-

⑤ 지역특화 지원제도

- 일본의 예술문화정책이 마을 만들기 등 지역창생을 포함하는 맥락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음
- 일본의 예술지역문화자산을 이용해 지역 특성 만들기를 지향하는 지원제도가 많으며 지역민을 위한 행사 등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의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음
- 지방지자체문화재단의 사업은 해당 지역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원금 상한액을 10~30만 엔 선에 두는 경향이 크고 해당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형태가 대다수임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도쿄 타이도구 예술문화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 타이도구(台東区)문화산업진흥부에서 주관하는 예술문화지원제도로, 매력 있고 참신한 예술문화 기획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 엔이며, 구 또는 구 소속 아트 어드바이저의 서포트도 제공함 -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전통예능 등 장르 불문, 대상자의 주소지나 활동거점에도 제한을 두지 않음 - 단,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응모 가능한데, ① 타이도구에서 실시될 것(홀 등의 공연에 한정하지 않음), ②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실시될 것, ③ 지원금이 없다면 기획의 실현이 어려운 기획, ④ 원칙적으로 전문 아티스트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조건으로 함 	타이도구에서 실행될 목적으로 기획된 예술문화 기획
도쿄지역예술 문화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아트카운실이 진행하는 지원사업 - 도쿄도내의 무형민속문화재를 활용한 공연 및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예술 사업에 지원 - 지원액은 필요 경비의 1/2, 또는 상한액 50만 엔 	도쿄 거점의 NPO, 보존회, 예술단체, 실행위원회, 계승단체
와가마치 문화극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가고시마현문화진흥재단이 진행하는 지원사업 - 가고시마현 각지의 문화활동 활성화와 지역특성 만들기가 목표임 - 지원금은 사용경비 총액에서 공공단체 또는 기타 단체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1/2 선에서 출연료, 문예비, 무대비, 설치운영비, 운반비, 연출자 여비, 기획제작비 등으로 사용 가능 	현내 임의단체. 독자 기획한 음악, 무용, 연극, 영상, 미술, 문예, 전통예능
아이주와카마츠 공연전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시마현 아이주와카마츠시(福島県会津若松市) 문화진흥재단이 진행하는 지원사업 -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예술가/단체의 창조, 감상, 문화단체 육성 활동을 지원함 - 지원대상 사업은 ① 창조활동(음악회, 연극, 무용, 자작영화회 등), ② 감상활동(예술문화의 흡수, 향유의 기회를 널리 시민에게 제공하는 활동), ③ 문화단체 등의 육성(활동이 특히 차세대 청소년 육성 또는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④ 인재양성(무대 관련 전문 스텝이나 아트매니지먼트 담당자 육성에 관련된 활동 등), ⑤ 특인활동(강연회 등 문화진흥사업 중 특히 시민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 등이며 지원금 상한액은 10만 엔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문학, 영화, 생활문화 아이주와카마츠시 내에 주소나 본거지를 둔 단체/기관

⑥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제도

- 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지방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음
- 해외연수, 국제교류 등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원금 상한액은 12개월 기준 100~300만 엔 정도로 형성됨
-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젊은 작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청년작가 창작지원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음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젊은 예술가 해외연수 지원	- 공익재단법인 포라미술진흥재단(ボ-ラ美術振興財団)의 젊은 예술가 해외 연수 지원프로그램 - 공모제로 진행하며, 일본국적자, 일본 영주권을 지닌 재일외국인에 한함 - 지원금은 1인당 340만 엔(1년) 이내	20~35세 회화, 조각, 공예 등 작가
해외음악 연수지원	- 메이지야스다쿼리털오브라이프문화재단(明治安田クオリティオブライフ文化財団)이 진행하는 해외음악연수생 지원 프로그램 - 성악과 기악 부문으로 공모하며, 해외연수에 필요한 비용(상한선 연간 200만 엔)을 2년간 제공	젊은 음악인. 성악은 42세 ↓ 기악은 38세 ↓
국제교류와 재외연수 지원	- 공익재단법인 유니온조형문화재단(ユニオン造形文化財団)이 진행하는 국제 교류와 재외연수 지원 프로그램 - 공간조형디자인 발전을 목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열리는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지원하며 1년에 1~2건 선정, 지원금은 1건당 100만 이하	젊은 건축가, 공간조형디자인 분야의 젊은 아티스트

⑦ 문화예술교육/매개자 지원제도

- 예술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미술문화 진흥에 힘쓰는 전문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연수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지원하는 재단의 성격에 맞게 미술, 음악 등의 연구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연구비 등 금전적 지원 또는 연수 참가 등의 교육기회 부여 등으로 주로 진행됨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미술관 직원의 조사연구지원	- 공익재단법인 포라미술진흥재단(ボ-ラ美術振興財団)이 미술관 학예원 등 전문 직원의 조사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 미술관직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미술사, 문화사, 미술관학, 미술관교육과 보급활동에 관한 연구, 미술관 매니지먼트 관련 연구, 보존·수복 등의 연구(개인 및 공동연구)에 지원 - 1건당 상한액은 200만 엔	미술관에 재직 중인 학예원 등 전문직 직원
문화예술활동 관련 인재육성 연수제도	- 문화청이 주최하는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 극장, 음악당 등의 직원이나 미술관, 박물관 학예원 등 예술문화 또는 문화재 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자질능력 향상을 꾀하는 연수 진행 - 전국 극장·음악당 아트매니지먼트 연수회(3일): 관리직 중견 - 블록별 극장·음악당 아트매니지먼트 연수회(2일): 관리직 일반 - 전국 극장·음악당 기술직원 연수회(3일): 기술직 중견 - 블록별 극장·음악당 기술직원 연수회(2일): 기술직 일반 - 역사민속자료관 전문직원 연수회(5일*2년): 전문직원(5년 ↓) - 지정문화재(미술공예품) 기획·전시 세미나(5일*2년): 학예사 - 박물관·미술관 보존담당학예원 연수(2주): 자료 및 보존담당 - 뮤지엄 매니지먼트연수(3일): 관리직, 지방공공단체 행정담당 - 뮤지엄 애드바이저연수(5일): 학예원 - 매장문화재담당자연수(불규칙): 지방공공단체 매장문화재담당 - 문화재행정강좌(3일): 지방공공단체 등의 문화재행정실무담당 - 전통적건물군 보호행정연수회(3일): 실무자 - 문화재건조물수리주임기술자연수회(8일*2년): 전통건축수리인	-

⑧ 창업활동 및 지원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제도

- 일반적인 창업의 테두리에서 진행되며 예술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별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움
- 지역의 경우, 지역창업센터를 통한 지원(일반창업)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예술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이바라키 현 토리데(도쿄예술대학 제2캠퍼스 소재), 카사마 시 등 예술관련 인적자원이 풍부하거나 예술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경우, 예술가들의 지역유치를 위한 공간 및 거점 제공 등의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창업을 지원하기도 함
- 예술가의 창업활동에 관해서는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NPO나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예술가 창업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디자이너스 빌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이너스 빌리지는 도쿄 타이도구(台東区) 문화산업관광부산업 진흥과가 운영하는 디자인 특화공간으로 패션/잡화관련 디자이너의 창업지원 및 구 산업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 설립 - 옛 고지마소학교 건물에 조성한 20㎡ 크기의 개별실을 디자이너들에게 저가로 임대함 - 1달에 3만 엔(개별실 8,000엔+공용실 21,000엔)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음 - 대도시 유휴공간을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활용하는 곳으로는 세타가야구 모노쓰꾸리학교(민간기업 운영)도 있음 	패션/잡화 디자이너
LLP마치카츠 [LLPまちか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을 원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오사카의 전통 건축물 보존지구[富田林寺内町]의 역사적인 건물을 매칭·임대해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 - 공예작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비워 있는 공간이나 주택 등 같은 장소들에 상점이나 작업실을 입주시킴 - 유한책임사업조합 富田林町家 이용촉진기구가 공간소유자와 입주희망자를 공모해 매칭함 - 지역의 공가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가현황조사 및 활용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 	공예작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티브 분야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아트카운실이 전개하는 네트워크 강화 지원사업 - 테크놀로지와 아트를 융합해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미디어예술, 애니메이션, 영화 등 크리에이티브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 - 영화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탈런트·도쿄(タレント・トーキョー)’를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제휴해 매년 11월에 개최해 영화감독이나 프로듀서를 꿈꾸는 아시아 지역의 참가자에게 노하우 공유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⑨ 기타 등등

- 단순히 창작지원, 생활지원에 머무르는 현재의 예술가 지원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목적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몇몇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음
- 창작이나 예술가의 역량배양을 위한 기존의 지원정책에서 진일보해 향유자와의 접점 마련, 예술가의 더 나은 창작을 위한 휴식, 예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등에 투자하기 때문임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예술문화 사회지원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아트카운실(Tokyo Art Council)이 진행하는 예술문화에 의한 사회지원 조성 사업 -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등의 창작활동이나 체험기회의 충실, 환경조성과 관련된 활동 - 예술문화를 통한 교육, 복지, 의료, 커뮤니티형성 등 사회나 도시의 과제에 충실한 활동에 지원. 장르 불문이며 지원금은 상한선 100만 엔. - 2016년 1, 2차에 걸친 지원액은 1,046만 엔으로 총 16개 사업에 지원했고 2017년은 1차에만 610만 엔을 9개 사업에 지원 	도쿄 거점의 NPO, 예술단체, 복지단체 등
중견예술가 안식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세종문화재단(セゾン文化財団)이 진행하는 중견예술가 지원프로그램 - 연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일정 수준의 평가를 받은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를 대상으로 '휴식과 충전'을 위한 1년간의 안식년 제공 - 지원금 상한액은 100만 엔. 해외 항공료, 체재비 등으로 사용가능 - 10년 이상의 활동이력은 필수, 1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개인이 신청 	10년 이상 활동경 력을 지닌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창조환경 이노베이션 문제해결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재단법인 세종문화재단(セゾン文化財団)의 이노베이션 문제해결지원 사업 - 재단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또는 현대연극, 무용계가 현재 품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점검하고, 그 창조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 - 2018년 과제해결 테마는 '무대예술의 관객증대방안'. 무대예술의 관객확대를 위해 작품창작이 아닌, 동원 관객수 증가, 관객층 개척, 광고, 선전방법의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및 홍보, 그리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지원비는 135만~200만 엔 	-

6) 시사적 사례 혹은 프로그램

① 미래 제안형 프로젝트 지원 사례 _ 도쿄 아트카운실

- 도쿄 아트카운실이 공모하는 지원프로그램으로 도쿄도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를 육성해 문화도시 도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사업임
- 예술단체, 민간단체,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최하는 사업 중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임팩트 있는 사업에 사업경비의 일부 (최대 지원 가능액은 필요경비의 1/2 또는 상한액 2,000만 엔)를 지원함
- 도쿄도 내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공연, 전시, 발표 등으로 예술의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함
- 테크놀로지와 융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술 활동이 응모가능하며 도시 전체에 축제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예술 활동을 우선시함

② 민간 기부를 촉진한 지원금 조성사례 _ 아트 서포트 간사이

- 간사이·오사카21세기협회(関西・大阪21世紀協会)는 민간이 기부한 자금으로 간사이의 예술문화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함
- 공모로 진행되는 이 지원 프로그램에는 대학원생, 해외일본인, 재일외국인, 해외외국인, 시민단체 모두 응모 가능하나, 단 지원 조건은 간사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국한하여 주로 간사이를 거점으로 예술·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 지원받고 있음
- 간사이·오사카21세기협회는 웹 사이트(<http://www.osaka21.or.jp>)를 통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진행한 기부 또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이 모두 8개의 분야 중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데, 분야는 ①미술, 디자인 ②음악 ③연극 ④댄스 ⑤영상, 영화 ⑥전통예능 ⑦특정 장르에 속하지 않는 복합적 예술 및 문화활동(생활문화, 스포츠 포함) ⑧ 지정 안함이고 웹 사이트에서 기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공익재단법인으로 보내면 됨

③ 지역 예술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지원사례 - 가고시마 아티스트뱅크

- 가고시마현문화진흥재단(鹿児島県文化振興財団)이 진행하는 지원프로그램은 현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활약이 기대되는 우수한 젊은 예술가들을 ‘아티스트뱅크’에 등록했으며 2017년 현재 112개팀, 123명(개인 105인, 단체 8팀 20인)이 등록되어 있음
- 아티스트뱅크에 등록할 예술가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데, 오디션 시점에 20~40세인 예술가에 한하며, 3년간 아티스트뱅크에서 관리함
-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크지 않지만, 연주회 개최, 각종 콩쿠르나 강연회 등에 참가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다카라야마홀(宝山ホール) 제2리허설 방과 미야마 콘셀 연습실 등 재단에 설치된 연습실을 무료로 이용할 특전을 주고 재단 주최의 콘서트나 워크숍 등에도 출연기회를 제공함

④ 폐교를 활용한 거점 및 연습실 지원사례 - 신주쿠 게노가덴샤(芸能花伝舎)

- 공익사단법인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음악, 무용, 전통예능 등과 관련된 단체들에 활동 스페이스를 제공함
- 2005년에 폐교가 된 요도바시소학교를 도쿄 신주쿠 구에서 빌려 실연예술진흥사업의 발신처인 ‘가덴샤(芸能花伝舎)’를 설립했는데, 이곳은 무대예술창작을 위한 수련장으로 활용하거나 연출가나 스태프의 연수, 교류, 회의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예능감상, 체험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 연 15만 명이 이용할 만큼 활성화되었고, 지역의 문화거점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부금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익재단법인이 아니라 실연예술인들 단체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음
- 문화예술을 접어질 사람을 키우고(인재양성),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장’을 만들며(공간개발), 사람과 장이 유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예술환경 개선)하는 등 실제 예술가의 입장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는 장소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곳에서는 ‘예술가들을 위한 재충전 교육’, ‘기획행정 실무자를 위한 실무교육’ ‘일반인을 위한 예술지도자 양성교육’ 등 풍성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며 같은 분야 종사자들의 교류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 중임
- 예술가들의 실질적 권익과 연결된 저작권업무(저작권 관리 대행이나 관련 컨설팅, 상담업무)도 하고 있음

⑤ 공공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사례 - 공공 홀 음악활성화 지원사업

- 일본은 1960~70년대 전국적으로 공공문화시설의 건설이 활발했으며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도시의 공공문화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형편임

- 일반법인 지역창조가 진행하는 클래식예술가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현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지역창조의 ‘공공 홀 음악활성화지원사업’은 공공 홀의 활성화와 지역의 음악분야에 있어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예술 활동이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공 홀 스태프 등의 기획, 제작능력 향상, 창조성 높은 지역 만들기과 클래식 음악 공연사업을 연계해 지원함
- 지원대상 사업은 ① 공연(콘서트): 공공 홀 등에서 개최하고 유료 입장하는 클래식 음악공연을 1회 실시하며, 지원받아 진행한 공연의 입장료 수입은 실시하는 시정촌 등에 귀속, ② 지역교류프로그램(액티비티): 학교 등에서 미니콘서트나 워크숍 등, 지역과 교류를 꾀하는 사업으로 4회(1일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지원은 2년간 진행하며 조성대상경비는 공연의 경우, 연주가(대상아티스트와 반주 공연자) 파견에 관한 경비, 출연료, 매니지먼트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교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피아노 조율비(한도 10만 엔)을 지원함
- 이 프로그램은 문화청의 ‘문화예술에 의한 어린이 육성교육(예술가 파견사업)과 연대해 지원받을 수 있음

7) 정책적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몇 가지 방향성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할 수 있음

-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만들어나갈 ‘프로젝트’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술가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보조금 사업과 차별화해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성남문화재단이 문화도시로서 성남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선도하고 거기에 맞는 예술 작품, 문화공연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할 때이기 때문임
- 문화예술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업무이며 지방정부의 예산에서 충당하는 지원금을 기초로 성남 시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부는 재단의 수입인 동시에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임
- 효율적인 문화예술지원을 위해 성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성남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성남의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에 동참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등록 예술가들을 최우선 지원대상 후보로 둔다면 스스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함
-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할 거점마련이 시급하며 성남이 융복합의 시대, 통섭을 지향하는 문화예술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희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 예술가들의 장르적 넘나들이 가능한 공동작업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임
- 성남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사용이 요청되는데, 성남 작가들이 느끼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남시민들이 언제나 찾아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공공 홀 음악활성화사업처럼 성남시의 재원으로 건립한 성남아트센터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 성남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성남예술가들의 활발한 발표의 장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3. 한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시사점

1) 한국 문화예술지원제도의 개요와 동향 분석

- 국내 문화예술의 지원은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거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시작되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각종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근거와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 1980년대 이후 문화예술지원은 문예진흥기금 모금액 확충과 국고 보조금 등의 재원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문화예술지원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지역문예진흥기금이 설립되는 등 지방문화행사지원과 지역문화시설 건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 관리체제 하의 외환위기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0년 최초로 문화부문 세출예산이 정부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섰고 문화예술을 국가의 유·무형 이익이 창출되는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함
- 참여정부 이후, 시설건립이나 지방 문화육성, 문화향수기회제공 등으로 유지되어 오던 지원 정책 기조에서 문화예술이 시장적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창조적 제고를 위한 창작환경 개선', '창조자와 수용자가 만나는 예술 환경 구축', '시장 활성화를 통한 예술의 자생력 확보'라는 <창의한국> 3대 비전을 제시함
 - 이러한 예술지원의 기본 방향과 함께 '문화정체성 확보', '새로운 지원방식개발', '다양한 사업개발과 프로그램운영',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의 균형적 발전'의 4대 목표를 <새예술정책>으로 표방하며 정부의 예술지원 방식이 점차 직접적인 보조위주의 예술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예술 환경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됨
 -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새로이 출범하며 실질적 예술지원 방식도 다양화되기 시작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인 '공연예술창작 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 '시각예술기획발굴지원' 사업 등이 추진됨
-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요 예술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라는 <예술지원 4대 원칙>을 통해서 예술지원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그동안 예술현장에서 제기되어온 '배분위주의 지원', '지원심의제도', '작품중심의 지원' 등 예술지원 방식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쟁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박근혜 정부는 '간접지원 확대', '예술지원 체계 개선',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예술 후원 문화 활성화'라는 주요 예술지원정책을 시행하며 '예술인 성장단계별(신진, 중견, 저명) 맞춤형 지원', '예술인들의 창작 안전망 구축', '문화예술 후원법 제정 및 문화예술 후원관련 세제개선' 등의 세부적 예술지원 정책들이 추진됨
- 2010년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로 제정된 <예술인복지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 다양성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은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리, 지역문화의 분권과 자율,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의 체계화, 내실화, 다양화를 시도하면서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사실상 거의 모든 중요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강력한 중앙 집중형의 정책에서 자치단체별로 점차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계기를 마련함

- 특히 2014년 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은 참여 정부 이후 지역분권 정책의 후속 조치로 단행된 문화예술 관련 산하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들이 지속적으로 설립되면서 지역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계획과 전략 수립의 계기를 마련함

- 최근 국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문화예술지원제도는 크게 ‘창작 진흥’, ‘매개역량 강화’, ‘향유 활성화’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의 유형별로는 ‘예술가 창조역량강화’, ‘문화예술 공간운영’,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등으로 나누어 예술지원 사업이 추진됨.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유형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	예술창작활동 지원,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육성,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지원	문학, 시각, 공연, 융복합 예술창작지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 국제교류활성화
향유	국민문화향유권확대, 함께누리 지원(장애인 대상),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바우처, 소외계층문화순회, 지방문화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우수문학도서보급,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공공박물관 미술관 특별전시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매개	박물관 진흥지원,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환경 개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미술관 운영지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다양성증진, 창작매개활동지원,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지자체공공미술프로그램지원

(자료 출처 :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3,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창작지원과 관련된 예술지원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사회 양극화 및 문화향유 수요 증가에 따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문화향유와 관련한 지원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예술지원은 사업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복권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개별 사업 주관단체가 되어 예술지원 사업을 추진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 사업 중 ‘지역협력형사업’은 중앙문화진흥기금을 지역으로 이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과 매칭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으로 구분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협력형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등의 사업을 총괄하고 광역시·도는 직접 ‘지역협력형사업’을 주관, 또는 문화재단에 일임하여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하도록 함
-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는 시·도에서 모든 지역협력형사업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문화재단이 있는 시·도의 경우는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및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지역협력형사업’을 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창작지원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적 쟁점들

○ 예술지원 대상 선정의 ‘포괄적 배분’과 ‘선택과 집중’

- ‘포괄적 배분’과 ‘선택과 집중’은 지원 대상을 선택하는 범위와 지원액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원칙의 유형을 말함
- ‘포괄적 배분’은 보다 많은 예술가(단체)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 원칙이고 ‘선택과 집중’은 보다 잘 하는 소수의 예술가(단체)의 활동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원칙임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원칙은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예술지원 방식으로, 그동안 예술지원이 단순 배분 위주의 일회성 나누어 주기 식 지원의 반복으로 인해 공공지원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임
- 선택과 집중의 대상은 단순히 예술작품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려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술 활동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직업으로 생각하는 프로페셔널 예술가와 그들이 함께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이러한 지원방식은 배분 위주의 지원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자칫 지원의 편중과 ‘부익부 빈익빈’ 지원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평가 및 책임지원 체계 확립으로 지원의 객관성·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 ‘직접지원’은 예술가에 대한 발표활동을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예술창작지원의 방식이며 ‘간접지원’은 공연 및 전시 공간의 대관, 연습실 제공, 무대기술인력 및 기획인력 지원을 통해 작품제작비를 절감하도록 하거나, 공연·전시 기획, 마케팅, 관객 개발 등 예술경영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말함
- 그동안 작품 창작과 발표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식인 ‘직접지원’정책은 공연예술 작품 제작의 양적 증가에 기여했으나, 발표 시기 집중화에 따른 공연장의 부족,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품 양산 등의 부작용과 함께 작품 제작비의 일부만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받은 작품을 무리하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연예술단체의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공연장, 미술관 등 예술가의 활동 거점인 문화공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 효율화하여 예술가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예술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전 이외의 토대를 제공하는 형식의 ‘간접지원’은 예술창작 및 향수활동 기반을 근본적으로 풍요롭게 하며 지원효과의 영향이 지속적이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직접 작품제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 활동의 자율성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지원 체감도가 낮으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단점도 나타남

○ 작품 창작의 ‘사전지원’과 ‘사후지원’

- 예술지원의 지원 결정 시점을 창작의 단계를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결정하는 분류로 ‘사전지원’, ‘사후지원’, ‘사전사후 융합형 지원’이 있음
- ‘사후 지원’ 방식은 그동안 공공 지원이 ‘계획서’나 ‘프레젠테이션’만으로 예술단체를 사전에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원의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사전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하자는 취지임

- ‘사후 지원’ 방식은 예술단체의 자발적 창작 노력과 관객 개발 성과를 전제로 시장과 관객의 역할과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를 형성하고 전문가 및 관객의 비평과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다면적인 예술 역량 평가환경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으나, 사후 지원은 열악한 예술가(단체)가 공적 지원의 도움없이 먼저 작품 활동에 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전, 사후지원을 병행하는 ‘사전 사후 융합형’ 지원방식도 있음

○ 엘리트 예술 지원의 ‘창작 강화 중심’과 시민의 예술향유 지원 ‘생활 속의 예술 중심’

- 예술지원 정책의 목표에 따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의 장려 및 창작의 질 제고를 위한 예술창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창작 강화 중심’이며, 지원정책의 성과가 단순히 예술현장의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예술지원 정책이 ‘생활 속의 예술 중심’ 지원정책임
- ‘생활 속의 예술 중심’은 전문 예술가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 활동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전통적인 유통경로인 공연·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이 생활 하는 일터와 가정과 커뮤니티 속에서의 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지원정책임
- 그동안 정부의 예술 지원이라고 하면 흔히 예술가와 예술단체 등 예술생산자에게 향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예술 소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만한 좋은 예술에 대한 논란이 되어 최근 수요자 중심의 예술지원으로 많은 지원기관들이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임

○ 예술지원의 ‘공정성’

- 예술계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지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 및 절차의 투명성과 신진작가 등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예술지원의 ‘공정성’ 문제제기는 지원대상자가 왜 공공지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지, 실제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함
- 공공지원과 관련한 각 기관의 공정성에 대하여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불공정하며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순서로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지원기관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중앙 대 지방’의 구분보다 ‘정부 대 전문공공기관’의 구분이 더 유의미함을 보여 주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특별회계’로의 이전

- 그동안 예술지원사업의 중요 재원이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지역특별회계’로 예술지원 사업 예산 이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이는 ‘순수예술’ 분야 지원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 시, 순수예술 지원 사업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수 있다고는 하나, ‘지역특별회계’의 특성상 그 규정이 온전히 순수예술 지원 사업으로 사용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수 문화예술지원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본래의 순수예술 지원에 투여되지 않고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전혀 엉뚱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기에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음
-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예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 경우 물론 재정 전달체계의 간소화,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적 재원 활용의 긍정적인 점을 예상할 수도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순수 문화예술 지원의 법적 목표와 근거가 흔들릴 여지가 있으며 또한 지방 자치 단체별로 예산지원의 지침이 늦어지고 사업공고가 늦어지게 될 경우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음

3) 중앙정부와 지자체 별 운영 형태 및 현황

- 최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 분권’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정책의 변화는 뉴거버넌스 이론 등과 결합해 지역에 알 맞는 문화예술정책을 요구하게 되고 각 지역마다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정책과 지역축제 등의 지역 활성화사업을 집행해 줄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계기를 마련함
-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형태의 문화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각자 담당해야 할 문화행정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이는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속성이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중앙의 기준으로 지방의 문화현실을 측정하게 되기도 함
- 문화예술활동의 형태도 창조적 문화예술품의 생산자였던 예술가와 문화엘리트 중심이 아닌 소비자이며 향유자인 일반 대중의 취미나 기호를 고려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해 오면서 각 지역에 문화적 특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 기초지역에도 문화재단이 설립이 점점 가속되고 있음

- 1997년 광역지자체 중 경기문화재단인 설립 된 이래 강릉문화재단(1998년), 강원문화재단 (1999년) 등이 설립되었고, 2016년 말 세종시문화재단과, 울산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문화재단이 모두 설립되었음

- 2017년 12월 현재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 가입 중인 기초문화재단은 총 69개임
- 이는 전국에 2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현저히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마다 설립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전체 기초문화재단 중 지역별로 서울 14지역, 경기 15지역, 총 29개 기초문화재단이 수도권에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은 예술가 및 예술기관의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지원 서비스와 일반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복지적 관점에서의 향유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음

- 일부 예술계에서는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한 결과 예술진흥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강조하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음
 -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혹은 향유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예술진흥과 문화복지 확대라는 두 가지 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유 중 하나는 예술진흥과 관련된 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적인 위상과 자율적 결정권을 보다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부와 예술위원회가 위계적 관계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광역지자체의 문화재단은 중앙의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역별 이전 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을 지역자체의 문예진흥기금과 합하여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의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 간의 관계는 아직 명확한 역할분담이 안 되어 있음
- 지역문화행정에서 지역문화예술계와 지역문화재단, 지방자치 부서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관계 정립도 아직 미흡함
 - 기초문화재단은 상위 광역문화재단을 업무상 상부위계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체계상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개별적 객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따라서 향후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간 협력적 연계 모색이 필요함
- 많은 기초단체문화재단의 주된 설립 목적은 기초자치 지역 내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여 기초지역 단위 내에서의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지역민과 친밀하고도 전반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 수립에 있지만, 각 지역별 기초문화재단의 운영형태와 사업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지역문화재단은 공공부문도 아니고 민간부문도 아닌 정부와 민간의 중간 조직, 또는 공사 혼합조직인 제3섹터 조직의 경향이 나타나고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서 행정적 시스템 상 지자체의 예산결정 및 심의권에 종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준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함
 -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지원의 중요한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지역문화재단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한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예술지원 업무는 부가적인 업무로 이해되는 경향이 큼
 - 지방재정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문화재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지역에 실행하는 수동적인 수탁기관으로 작동하는 데 그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도 제기됨

4) 재정 조달 및 확충방법

○ 지역문화재단의 재원조달 방식과 유형

- 지역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재원은 사업의 범위, 사업내용, 조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도 재원조성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사업별 재원조성, 연례재원조성, 기금 조성으로 나누어짐
- 대부분의 중앙정부 문화예술기관이 공공부문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듯이 지역문화재단 또한 마찬가지로 상황임
- 국내 지역문화재단 중 기초자치권 문화재단이나 새로이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기부금 조성을 위한 재단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상태임
- 국내 예술단체들이 더 이상 공공부문의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부문 재원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 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역특별회계’로의 이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를 위해서 기업의 기부 출연금을 확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불법에 의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국가 환수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한다거나,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비용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고 예산의 기금적립을 최소화하면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

5) 지원제도의 유형별 분류 및 특징

○ 국내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사업들은 기금의 지원사업과 문화시설의 위탁 운영, 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문화콘텐츠의 연구 개발, 문화재를 포함한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기초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지원의 유형별 분류

- 전문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지원
- 시민문화예술 및 생활예술 지원
- 예술 창작활동 거점 마련을 위한 공간 지원
- 축제 및 기타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한 지원
- 연령이나 경력을 기준으로 구분한 예술가(단체) 지원
- 지역의 예술단체 운영 및 상주단체 지원
- 매개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
- 예술교육 등을 통한 예술 지원
- 지역의 문화예술 DB 및 아카이브 구축 등

① 창작지원제도 - 전문 문화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 전통적으로 전문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지원은 중앙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예술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관계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기초문화재단의 창작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일부 기초문화재단에서 창작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문화재단에서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창작지원을 진행하고 계획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임
- 지역의 전문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원은 기초문화재단별로 지역의 특색과 예술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기초문화재단의 창작지원은 지역기초단체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이관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되는 사업들과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지방의회를 통해 확보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 지원금의 규모는 포괄적 배분의 형태로 200만원에서 500만원 규모로 소액 다건 지원을 하는 곳이 대체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역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와 발굴을 위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다년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들이 시행되고 있음

[표 27] 기초문화재단의 창작지원 / 전문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원 사례

재 단 명	사 업 명	지원내용 및 특징
김포문화재단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 전문예술단체의 시민(지역) 밀착형 예술활동 지원 - 총 사업비 7천8백만원, 최대 2,000만원
군포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군포시 소재 단체로 관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단체 - 총 사업비 8천5백만원, 최대 1,200만원
부천문화재단	공연예술단체 창작지원 <부천 공연창작소>	- 1차년도 창작소재 개발단계 최대 500만원 - 2차년도 공연제작 단계 최대 1,500만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지원사업	-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최대 1,500만원
	지역문화자원 기획사업 <예술가의 놀이터로 오세요>	- 수원 지역에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 - 최대 400만원
	우리동네 라이브러리 지원사업	- 수원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문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에 대한 자료집(아카이브)을 제작지원 - 최대 2,000만원
안양문화재단	지역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	- 경기문화재단협력사업(공연예술·시각예술 - 경기·안양 지역의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 안양문화예술재단 유희공간을 활용한 작품전시활동
용인문화재단	전문예술지원사업	- 전문예술단체(또는 개인)의 창작 및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 최대700만원

재 단 명	사 업 명	지원내용 및 특징
화성문화재단	화성시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지역예술활동 지원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 -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문예술분야의 예술활동 - 최고 1,500만원
강릉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사업	- 강릉관내 전문예술단체 - 300~500만원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전문) 지원사업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 활성화 최고 : 1,200만원
춘천문화재단	전문예술 지원	- 창작지원 최고 2,000만원 - 기획지원 최고 1,000만원
	춘천거리공연	- 야외에서 가능한 예술단체 및 컨소시엄 - 최대 11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지원 - 최고 400만원
당진문화재단	당진문화진흥기금	- 일반단체 총 1억9천만원 - 신진단체 총 1,000만원
	시민사회문화단체 연계사업	- 문화예술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주최·주관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문화예술행사 - 총 2,000만원 이내, 최대 1,000만원
	지역공연예술지원사업	- 당진 공연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 총 사업비 3천5백만원 내 5개 작품 지원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 문화예술 모든 장르의 미발표 창작 활동 - 6팀 내외 (최소 200만원 ~ 최대 1,000만원)
익산문화재단	다이나믹 익산 아티스트 지원사업	- 예술가 및 예술단체 창작지원 총 2,880만원 최대 500만원 - 지역역사문화콘텐츠활용 지원 총 1,000만원 최대 500만원
전주문화재단	도시갤러리, 전주 작가공모	- 작가의 작품을 임대하여 공공장소 등에 전시하여 예술작품 유통 활성화 - 최대 20명, 작가별 100만원
목포문화재단	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문화예술의 창작 및 발표 활성화, 지역의 문화예술 창조 역량 강화, 문화예술 교육 및 교류사업 -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최대 300만원

(자료 출처: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② 창작지원 - 신진·원로예술가 지원

- 국내의 예술분야의 종사자는 대부분 서울 등의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됨으로써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며 이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의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부족한 경우 청년, 신진, 유망예술가를 개발하려는 지역 예술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원 사업의 대상을 연령과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약간의 기준차이는 있음
- 지원규모는 최소 3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예산 규모로 지원되어지고 있으며, 신작 개발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 등의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28] 기초문화재단의 창작지원 / 신진 · 원로예술가 지원 사례

재 단 명	사 업 명	지원내용 및 특징
부천문화재단	청년예술가지원	- 작가주의적인 예술활동, 표현하라 <청년예술가 S>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자원 발굴조망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 수원의 미래 인적 문화자원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선도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유망예술가를 지원 - 최대 1,500만원
강릉문화재단	신진예술 지원사업	- 정기공모사업 100~300만원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특성화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 만 35세 이하의 청년예술가와 청년문화활동가 등의 예술활동 및 콘텐츠 기획 지원 - 최대 500만원
충주충원 문화재단	충주시원로예술가 지원사업 '실타래'	- 충주 원로예술가 역량강화를 위한 제작 지원 - 최대 500만원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우린 젊으니까'	- 청년예술가 역량강화를 위한 신작제작 및 실연 - 최대 500만원
완주문화재단	예술인 문화귀향 활성화 예술로 창업 인큐베이팅	- 완주 연고 또는 완주군에서 1년 이내 예술창업을 꿈꾸는 청년 예술인 (만19세~39세) - 최대 700만원
익산문화재단	다이나믹 익산 아티스트 지원사업	- 만 40세 이하 - 총800만원 최대지원액 400만원
전주문화재단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 데뷔작품 창작활동 지원-최대 2팀, 최대 600만원 지원 - 유망작품 창작활동 지원-최대 2팀, 최대 700만원 지원 - 창작품 실연공간 지원-최대 2팀, 실연공간 지원
금정문화재단	신진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처음>프로젝트 공모	- 만 39세 이하 공공지원금 수혜경력이 없는 신진예술가 및 단체 지원. 총 900만원 내 단체 및 개인 차등지급

(자료 출처: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③ 창작지원 - 생활예술 및 시민예술지원

- 최근 수요자 중심의 예술지원으로 많은 지원기관들이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문화예술정책의 환경 변화 경향으로 많은 기초문화재단에서 지역민의 예술향유와 비전문 예술가인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예술과 시민예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의 유형은 지역의 재단별로 독자적인 사업모델과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모델과 광역문화재단 및 중앙문화예술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민의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전문예술가(단체)와 지역민이 결합하여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예술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사업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동아리 지원 사업 같은 동호회 성격의 지원은 예산규모가 소규모이고, 예술가와 지역민이 결합된 예술프로젝트의 경우는 지원규모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④ 공간지원

- 대부분의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공연장 등의 시설운영과 함께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예술지원의 방식도 다양화되어 예술가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간지원과 함께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이 예술지원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지역의 경우 공간지원 사업은 지역의 예술가 보호와 외부예술가의 유입을 유도하면서 예술가와 지역의 커뮤니티가 함께 역량을 개발하는 기초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임

[표 29] 기초문화재단의 공간지원사업 사례

재단명	사업명	지원내용 및 특징
부천문화재단	신진예술단체 공간지원	- 신진전문예술단체들이 창작예술전문단체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 마련
안양문화재단	안양예술인센터 입주단체(작가) 공모	- 안양출신 및 안양거주 예술인이나 안양시에 연고를 두고 지역활동 역량이 있거나 준비중인 예술인 및 단체
부평문화재단	부평음악도시 음향장비 임대 지원사업	- 부평음악도시 조성사업의 공간적 구현을 위한 음향장비 임대 지원. 최대 2,000만원
당진문화재단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별별동지'	- 당진문화예술학교 창작공간(연습실) 및 발표공간, 성과발표 비용 일부 지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 민간이 등록 운영하는 시각예술 전시공간을 지원 - 사업비 1,400만원 이내 2개 공간 선정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예술+공방 스터디움」 레지던스 입주작가 공모	- 순수미술과 공예기반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로 입주 작가들의 창작역량을 키우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매달 60만원 내외의 창작지원비와 재료가 지급
익산문화재단	익산아트센터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 입주작가 창작발표 등 전시프로그램 지원 - 지역 작가, 지역주민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입주작가의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임대지원	- 익산시 중앙로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 건물로서 건축물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 임대료지원 - 총 7,000만원, 최대 360만원(년)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무료대관	- 25년간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예술플랫폼으로 조성 지원
	창작지원센터 '대안동문만세' 운영단체	- 창작지원센터 정기공연을 운영하며 정기공연 개최 장소 및 음향/장비 일체 무상 지원
	프로젝트 안녕 선미	- 선미촌 내 유휴공간에 예술가의 예술실험 지원 - 창작지원비 300만원, 창작진행비 200만원
	전주한벽문화관 협력 - 전통공연예술단체 지원 사업	- 공연예술단체에 실연 공간을 지원하고, 공연예술단체는 우수 창작품 및 레퍼토리 공연콘텐츠를 제공. - 마케팅 및 기획 지원
포항문화재단	아라예술촌(구룡포 생활문화센터) 활동작가 모집	- 창작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등 센터 내 공간사용 지원 - 창작활동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 포항문화재단 주관 문화축제 및 행사에 참여기회 제공

(자료 출처: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 지원방식은 전시 및 공연, 창작 및 연습 공간 등의 제공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꾸미는 장비 지원, 공간이 입주할 건물의 임대료 지원, 입주예술가들의 창작지원비 및 재료비 지원 등이 있음
- 지원규모는 지원형태와 입주기간, 프로젝트 수행 여부에 따라 예산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⑤ 축제 및 기타지원

- 최근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지역 및 도시재생 사업으로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살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면서 문화예술 인프라와의 연계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표 30] 기초문화재단의 축제 및 기타지원 사례

재단명	사업명	지원내용 및 특징
강남문화재단	목요상설무대 공연 참여 예술단체 공모사업	- 재단에서 상설로 진행되는 공연사업을 공모로 진행 - 최대 700만원
수원문화재단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	- 공연·전시·이벤트·축제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기획을 통해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 - 최대 4,000만원
안산문화재단	거리예술 제작지원작품 공모	-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참가할 작품의 제작 지원 - 최대 3,000만원
강릉문화재단	박준용 청년예술문화상	- 강릉출신 15세-45세 청년전문예술인 시상 - 상금 500만원
원주문화재단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개발 및 프로젝트 지원 - 1차년: 최대1,000만원 내, 2차년: 최대2,000만원 내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지역문화산업기업 국내외 마케팅지원 사업	- 문화산업기업의 제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전시 참관, 온오프라인 마켓진출, 홍보물 제작 등의 지원 - 최대 1,000만원
익산문화재단	문화나눔 메세나 장려사업 - 매칭 펀드	- 기업과 지역예술단체의 매칭을 통한 후원 지원 - 최대 200만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내 유희공간 및 골목길을 활용한 예술적 표현 활동 공모 - 총 1,000만원(1개 사업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주문화재단	전주이야기자원 공연화 지원사업	- 전주시 소재 공연예술 단체의 공고일 기준 실현되지 않은 창작초연 (소설 등 문학작품의 각색 포함) 작품 기획단체 - 최대 2,200만원
목포문화재단	기획공모사업	- 원도심 지역에서 이뤄지는 정기거리공연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할 단체 - 최대 500만원

(자료 출처: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색깔을 만들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역의 축제의 개발과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기초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많아지는 추세임
-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의 지역 문화예술 공간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지역의 소재를 대표하는 예술콘텐츠 개발, 지역의 기업과 매칭하여 지역 예술을 지원하는 지역 메세나 프로그램, 지역의 예술가를 기리는 문화예술상 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사업별로 예산의 규모가 다양함

⑥ 문화기획인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에서 활동할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기획인력 교육 훈련 및 기획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함

[표 31] 기초문화재단의 문화기획인력 지원 사례

재단명	사업명	지원유형 및 특징
익산문화재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익산에서 활동 가능한 인원 - 익산 10명(도시재생 분야) - 전체 30명(익산+전주+완주)

(자료 출처: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 대부분의 기초문화재단에서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에서 예술강좌와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이와 함께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표 32]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례

재단명	내용	지원유형 및 특징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최대 1,000만원
익산문화재단	예술가 연계 문화예술 교육콘텐츠 개발 - 「마실: 예술가의 방」 작가 모집	- 익산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경력 10년 이상인 작가로, 개인 작업실(연습실)을 보유한 자 - 8회 이상 수업 기준 강의로 및 재료비 일부 지원
목포문화재단	문화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정기 강좌 개설 - 최대 400만원

(자료 출처: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⑦ 문화예술 DB 구축 및 아카이브 운영

-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예술기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민도 지역의 예술단체 및 예술기관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DB와 문화예술활동 자료를 아카이브를 통해 보존하는 사업을 기초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표 33] 기초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DB 및 아카이브 구축사례

재단명	내용
구로문화재단	문화예술 DB(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기관, 청소년 동아리)
김포문화재단	김포 근현대 역사문화 구술채록 사업, 김포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

재단명	내용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지도(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동호회, 문화공간
안양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 디지털아카이브즈
화성시문화재단	문화DB(문화예술단체)
강릉문화재단	강릉작가 아카이브센터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 DB
춘천문화재단	춘천문화아카이브
충주중원문화재단	문화예술 DB(전문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인)
당진문화재단	당진문예연감
천안문화재단	천안문화예술뱅크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 DB(문화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익산문화재단	익산예인열전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단체소개

(자료 출처: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⑧ 지역 예술단체 및 상주단체 운영

- 지역의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시·구·군립 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문화재단도 다양해지는 추세임
- 시·구·군립 예술단체는 지역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아마추어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전문예술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짐
-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인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의 대상인 전문예술단체를 지역에 매칭하여 유치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효과와 함께 예술단체 지원의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서울, 경기 지역은 많은 기초문화재단에서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술단체와 함께 공연 이외에도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축제 등의 기획사업도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34] 기초문화재단의 예술단체 및 상주단체 운영 사례

재단명	예술단체	상주단체
구로문화재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구로구립여성합창단	극단 아리랑, 바닥소리, 서울오페라앙상블
광진문화재단	광진구립여성합창단 광진구립청소년합창단	극단고래, 박명숙댄스씨어터 클래식칸앙상블
마포문화재단	마포구립합창단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서초문화재단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서리풀오케스트라, 이 마에스트리, 디토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재단명	예술단체	상주단체
성동문화재단		국악무지컬집단 타루, 극단 하땅세 창작국악그룹 그림
성북문화재단		극단 서울괴담
군포문화재단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세종국악관현악단
성남문화재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안산문화재단		극단 결판,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안양문화재단		방타타악기앙상블
오산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오산, 물향기 엘 시스템아 오케 스트라, 청소년 기타 오케스트라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립합창단,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용 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평문화재단	부평구립예술단	부평 올스타 빅밴드, 문화공작소 세움
강릉문화재단	강릉시립교향악단, 강릉시립합창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춘천문화재단	춘천시립교향악단, 춘천시립합창단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	
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스노우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평창스노우어린이합창단 평창스노우성인합창단	
경주문화재단	경주시립극단, 경주시립합창단 경주시립신라고취대	
포항문화재단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김해문화재단	시립합창단, 시립가야금연주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동구문화재단	동구합창단	

(자료 출처: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⑨ 기부금, 후원회, 기타 재원조성 활동

- 지역의 기초문화재단은 공공재원 이외에 예술가와 예술단체,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와 기부금 제도, 문화메세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표 35] 기초문화재단의 기부금 등을 통한 재원조성활동 사례

재단명	운영형태	재단명	형태
성동문화재단	기부후원제 운영	종로문화재단	문화기부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후원회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후원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기부금 제도
천안문화재단	기부금 제도	수성문화재단	문화메세나
김해문화재단	기부금	목포문화재단	후원회

(자료 출처: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6) 시사적 사례 혹은 프로그램

① 수원문화재단의 <수원문화지도>

-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의 문화예술정보와 DB를 파악할 수 있는 수원문화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 수원문화지도에는 수원지역의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동호회, 문화공간, 문화소식, 문화지도, 지원사업의 DB를 구축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수원문화지도의 DB를 통해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지역의 전문예술가와 전문예술단체를 파악하여 창작 지원 및 시민문화예술 지원 기초로 활용하고 문화소식과 문화지도를 통해 수원시민의 예술향유 활동을 안내하고 있음
- 수원문화지도는 수원지역의 전문예술가와 전문예술단체에게 수원의 지역예술가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면서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현황 파악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의견을 취합하기도 함

② 성북문화재단의 <성북 시각예술 네트워크>

- ‘성북 시각예술 네트워크’는 성북예술창작터를 중심으로 성북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 기관 및 단체(갤러리 디렉터 및 큐레이터), 예술가, 미술기획자와 함께 성북동 미술 네트워크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성북문화재단의 문화공동체 사업임
- 성북동은 간송 미술관과 가구박물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굵직한 대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성북구립미술관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신진작가 발굴과 다양한 전시들을 기획하는 여러 신진 예술 기관들이 함께 위치함
- ‘성북 시각예술 네트워크’는 독특한 자기 언어를 가진 여러 예술기관들의 어우러짐으로 인해 성북동은 성북동만의 독특한 예술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북 미술 생태계 조성으로 인해 성북동의 역사와 정취에 생명력과 숨을 불어넣는 지역의 독특한 사업임
- ‘성북 시각예술 네트워크’와 더불어 성북문화재단은 성북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공간운영자,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 제안 및 정보를 나누고 실행하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모임인 ‘공유성북 원탁회의’, 성북구 기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신규 주체 발굴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성북의 문화 자원과 구립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 노하우, 사람책 도서관 <위즈덤>, 협동조합 <성북신나>가 만나 함께 만든 새로운 방식의 성북형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하는 ‘달달한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음

7) 정책적 시사점

- 문화재단의 문화서비스에 있어 “문화”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각각 협의의 ‘예술중심 문화서비스’와 광의의 ‘문화’를 전제하는 문화서비스 관점에서 각각 접근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재단의 예술지원 차별화된 ‘창작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함
-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재원조성을 위한 조직 내 전담부서 활동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련 기업과의 연계성을 찾아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의 기업들과 제휴해야 함으로써 지역의 기업들과 제휴를 맺는 기초적 네트워킹을 조성하고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의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은 국민 일반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예술가의 창작혜택을 국민이 향유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지원이 예술향유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 일반’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의 창작지원은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창작이나 매개, 향유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예술 공간이나 창작시설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함
- 예술가, 예술단체 창작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일부 창작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술가 창작지원에까지 중점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기초지자체는 많지 않을뿐더러 예술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앙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규모나 여건상 기초 지자체 수준까지 전달되는 경우도 많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문화정책이 중앙 중심적이고 획일적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시민운동으로서의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역문화정책 방향에서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므로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 속에 파고들어 지역의 문화예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능을 지역문화재단이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됨

Ⅳ.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제언

1.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

- 성남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질 높은 문화생활의 생산과 소비, 향유 체계가 갖춘 문화 창조도시를 구축하겠다는 성남시의 미래 도시 비전에 걸맞는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사업 구축은 성남시의 산하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이에 맞는 시책이 강구되어야 함
- 성남문화재단이 지역의 특화전략으로 장기간 추진해 오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정책과 커뮤니티아트 집중 육성전략은 일정의 성과를 올렸으면 나름대로 상승 궤도에 이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전문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특화전략은 설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공공재로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재고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며 이를 통해 생활문화예술 활동과 전문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균등 있는 지원과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기존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지역의 특수성과 환경요건을 고려, 문화예술의 미래자원과 인적 자원 발굴을 위한 시책이 마련되어 지역에 정주하면서도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 환경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짧은 도시 역사를 갖고 있는 성남의 문화재단이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그런 점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방향도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이번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지원사업을 통해 성남의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를 집결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수립되어야 함
- 또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발굴적 차원의 지원사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공공재로서 확장하고 자리매김하게 하는 기관으로서 그 위상과 입지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2.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핵심과제

1)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방향성 설정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의 대상과 자격, 임무와 기능, 비전과 목적이 기대하는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설계, 규정하고자 함

- 비전과 목적

- 성남시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및 활성화와 관련된 다각적인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과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창작지원체계의 구축
- 성남시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및 기획역량 강화와 새로운 인적 자원의 발굴 및 양성, 육성에 기여
- 창작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에 중심을 둔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기획, 공간조성 등과 같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매개활동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의 전문 역량강화와 활성화 도모
-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지원과 더불어 간접지원 체계를 동시에 함께 모색하고 강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환경조성과 기반강화는 물론 지역 고유의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특화하는 전략과 지원체계 구축
- 이와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창작의욕과 동기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이들의 상생 협력과 교류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

- 임무와 기능

- 성남시의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과 생산, 향유와 소비, 기획과 유통과 관련된 사업에 전략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체계를 구축 및 활용
- 성남시의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문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망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양성, 육성하는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2006년부터 성남문화재단이 추진해 오고 있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만들기’의 비전에 부합하는 전문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극대화하는 전략적 장치로 기능
- 현재, 성남문화재단이 시민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및 생활문화예술 공동체의 자생적 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목적과 기능을 담보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역량강화의 지원체제로 활용하고 자리매김
-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의 자생력과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구축하는 발판으로 기능
-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하며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발전소이자 역량강화의 인큐베이터로서 작동하는 지원체제로 자리매김
- 성남시가 지향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하고 확보하는 동시에 성남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브랜드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매개체로 기능

- 대상과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개념과 범위를 충족하는 전문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
- 그 외에 상기의 법규에서 제외시키고는 있으나,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향후 유망하거나 전망이 밝은 새로운 문화예술 개념의 전문 인력과 단체
-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종사하는 전문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전문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성남시 바깥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며 활동하나, 성남에 연고를 갖고 있는 전문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성남을 주제로 창작 또는 표현활동을 하거나 연고를 두고 있는 전문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성남시에서 개최되거나 추진될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참여하거나 시행할 전문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아울러 개인적인, 경제적, 사회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중지하거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 문화예술인 등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설계, 추진
-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창작활동의 개념에서 벗어나 제작, 기획, 전시, 공연, 발표, 유통, 향유와 감상, 교육 등의 차원을 포괄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활동하는 전문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운영

2)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핵심과제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역할 제고를 위해 핵심가치와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사람과 연계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은 사람에서 출발한다고 보며 이런 의미에서 성남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단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종사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집결하는 동시에 연대의식을 일깨우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잠재력과 힘을 공동으로 계발하고 발휘하는 공동체 사업을 지향하여야 할 것임

- 장소와 집결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이 지역 특유의 문화자원 개발과 문화정체성 형성에서 출발한다고 본다면 성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단순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자원과 특성이 발로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모두 집결하여 새로운 성남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생태계를 배양하고 생산하는 무형의 건축적, 장소적 모형으로 기능하는 장소를 지향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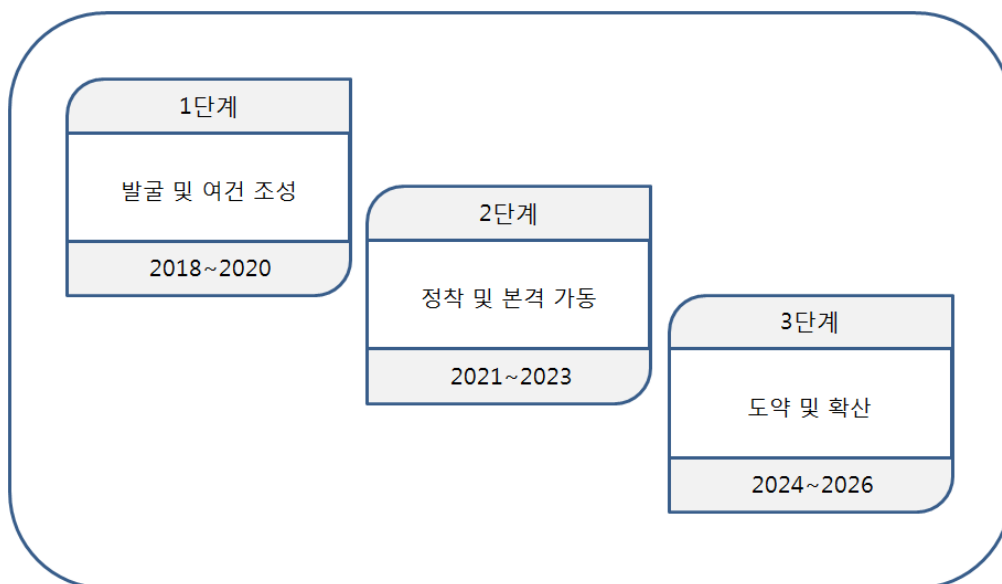
- 교류와 확산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이 사람과 사람, 장소와 장소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일어난다고 하며 성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다양한 관점의 사람들과 장소가 상호 호혜적으로 소통하며 교류하는 동시에 논의하고 비평하여 상호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성남의 지역 문화예술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장치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성남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확장하는 역할과 임무를 확보하고 인식하게끔 하는 방향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임

3.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모델 개발을 위한 발전계획과 추진방안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3단계의 체계적인 사업구상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표 36]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발전단계



○ 제1단계 : 발굴 및 여건 조성

- 성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규정 및 확보를 위한 실험적 운영체계 구축
- 성남 지역 내 문화예술인 실태와 현황 파악을 위한 발굴적 차원의 시범사업 운영

○ 제2단계 : 정착 및 본격 가동

- 성남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현황과 실제 욕구를 반영한 운영체계 구축
- 성남의 지역적 특수성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집중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성남 문화예술지원사업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 및 여건 강화

○ 제3단계 : 도약 및 확산

- 성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인적, 물적 기반 확충, 보완계획 수립
- 성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구축
- 성남 문화예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개발 및 활성화 방안 구축

○ 성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발전계획 아래, 1단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상, 설계함

[표 37]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1단계 추진사업

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유망지원사업	유망작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기초지원사업	기초예술 창작기획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역 내 전문 문화예술가와 단체를 집결시키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
	공동 창작활동 및 교류 거점공간 지원사업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공동창작과 상호교류의 거점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해외 파견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문화예술인의 잠재력 개발과 현장체험을 통한 자기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중점지원사업	성남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지원사업	성남의 특화 문화예술분야인 커뮤니티아트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사업
	레지던스 참여작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남이 발굴한 공공예술창작소 참여작가의 역량강화와 재충전을 통해 지역 인적 자원으로 흡수하고 발전시키는 지원사업

1) 성남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지원사업

○ 추진 목적

- 커뮤니티 아트를 기반으로 성남의 새로운 문화자원과 콘텐츠 개발을 모색하고 도모하는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설계하여 커뮤니티아트의 중심지로서 성남의 대내외적 위상과 입지 제고
- 기성의 커뮤니티 아트 관계자와 청년세대 문화예술인의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성남의 차세대 커뮤니티아트 지도자 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전문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의 창구로 활용

○ 추진 내용

- 성남의 문화자원은 미흡하게 존재하나, 커뮤니티아트의 거점으로서의 대내외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문화자원의 개발 잠재가능성은 확보한 상태로 판단됨
- 성남의 커뮤니티아트의 경쟁력과 대내외 입지를 고려, 커뮤니티아트를 활용한 성남의 새로운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재개발하는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로 운영을 추진
- 기존의 커뮤니티아트 활동가와 청년세대의 젊은 인력을 매칭하여 성남의 지역적 특수성과 장소특정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아트 캠프 혹은 인큐베이터를 운영하여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상호 교류와 상호 역량강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성남의 차세대 커뮤니티아트 리더 또는 기획자와 활동가, 창작자 등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로 진행
-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청년세대에 주목하여 청년세대가 기획하고 자신들의 커뮤니티아트 활동에 필요한 기존의 작가 또는 기획자, 활동가를 멘토로 영입하여 운영되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운영방식 구축 및 설계

- 멘토로 참여하는 기성작가나 활동가는 성남 지역 내 인력을 영입,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청년세대의 기획에 따라 지역 바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선정, 초빙하는 형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아트에 무관한 장르의 문화예술인을 영입하여 운영 가능한데, 이를 통해 커뮤니티아트의 융합적이고 실험적인 무대이자 장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외연 확장을 도모
- 일본의 토리데 아트 프로젝트(Toride Art Project)와 같은 형식의 향후 성남 특유의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행사 혹은 비엔날레 형식의 지역축제로 발전하는 기반구축 및 전초기지로 활용

○ 지원 대상 및 자격

- 성남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갖고 있는 청년세대의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 그룹이 기획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남 지역 내 소재하는 대학 및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에게도 지원자격 부여
- 청년세대 문화예술인의 경우, 활동경력이 짧거나 새로 입문하는 경우, 모두 지원가능하며 반드시 멘토를 지정, 지원하여야 함
- 멘토로 참가하는 기성작가 혹은 전문가의 경우, 장르와 분야는 상관없으나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일정한 활동경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성남의 지역적 특성과 콘텐츠 개발에 조력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사업 지원에 앞서서 성남의 청년세대 문화예술인과 멘토로 참여하는 자와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 형태로 운영

2) 레지던스 참여작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 추진 목적

-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에서 발굴, 육성한 문화예술인에게 해외 탐방 및 행사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자기역량 강화 및 확장의 기회 부여
- 지원사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예술창작소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간의 창작활동 의욕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 자기 경쟁력을 창출 및 촉진하는 자극제로 활용
- 성남문화재단의 공공예술창작소에 거주했던 문화예술인을 통해 성남문화재단의 대내외적 인지도 향상 및 제고의 기회 확보

○ 추진 내용

- 성남문화재단의 공공예술 창작소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
- 성남문화재단의 공공예술창작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활동과 성과를 기반으로 졸업년도에 앞서서 향후 성남에서의 활동계획서 혹은 공공예술 개발자로서의 기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대내외 전문가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 해외 파견을 우선으로 하고 해외 파견지는 무료 레지던스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유료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일 수도 있음
- 지원대상이 무료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성남문화재단의 해외 MOU 기관에 파견을 우선하고 현지 체류비를 성남문화재단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

- 유료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파견되는 경우는 성남문화재단에서 파견 레지던스를 지정하고 레지던스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체류비용은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
- 레지던스 파견 및 체류 외에도 해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해외의 공공미술 관련 장소에서 작품 공개 및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사업을 수혜한 후에는 성남문화재단의 공공예술 창작소 등에서 성과 및 결과보고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운영

○ 지원 대상 및 자격

- 성남문화재단의 공공예술창작소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가운데 2년간의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의 문화예술인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며 공공예술창작소에서의 활동 성과와 결과물을 기반으로 심사하여 결정
- 성남문화재단의 공공예술 창작소를 졸업하고 2년간의 지속적 활동경력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도 대내외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지원하도록 함

3) 기초예술 창작기획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 추진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기획사업을 지원하여 성남시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설계, 운영
- 성남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우선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창작의 계기와 동시에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창작의 동기를 제고하는 무대로 기능
-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반영되고 미래의 문화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기획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강화하는 무대로 활용

○ 추진 내용

- 기존의 장르별로 지원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기획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이 활동한 결과물과 창작물을 집단적으로 발표하고 공개하는 형식의 무대 또는 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및 진행
- 지역 문화예술인의 집결과 교류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고 매개할 기획자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상생적인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형식으로 운영
-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을 직접지원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전시회, 연주회, 공연 등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집결과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설계하여 운영
- 신작은 물론 기존에 제작된 작품까지도 포함하여 성남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콘텐츠를 새롭게 대표하고 발굴하는 차원에서 기획되는 사업으로 진행하여 지역 예술인과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
- 지역의 기성작가뿐만 아니라 신진작가들도 참여하는 창작기획사업을 구상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 신구세대가 함께하며 상호교류와 경쟁을 촉진하고 증진시키는 기획사업으로 추진

- 기획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성남문화재단의 아트센터, 전시장 등 공간시설과 자원을 활용한 공간 제공과 사용 등을 전제로 한 지원사업으로 추진
- 기획사업의 최종 발표는 성남문화재단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시설 및 공간 등과 연계하여 성남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축제로 진행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향유 촉진 등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발신 장치로 활용

○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발표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기획자를 선발하며 여기에는 지역의 문화예술가는 물론 기획자, 비평가, 문화예술 활동가 등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함
- 성남의 지역 문화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기획사업을 구상하는 지역 외의 기획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운영하며 이 경우, 참여작가의 일정 비율은 성남 지역작가들로 구성하여야 함
- 개인전 형식의 기획 사업이 아니라 단체전 형식의 기획행사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4) 공동 창작활동 및 교류 거점공간 지원사업

○ 추진 목적

-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과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는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집결하며 지역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거점으로 활용
-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거점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의 실태파악과 현황에 대한 리서치 무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자주적 창작활동과 발표의 인큐베이터로 활용

○ 추진 내용

- 전국의 문화예술인이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욕구는 성남 문화예술인에게서도 마찬가지라고 유추 가능함
- 이를 위해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의 유휴지를 활용, 거기에다 컨테이너 등과 같이 간이 시설을 활용한 공동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성남 문화예술인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유료로 제공하여 성남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비롯하여 교류 및 유대관계 형성의 집결지이자 무대로 활용하는 지원사업 운영
- 성남문화재단에서는 공간조성을 담당하고 이 거점공간을 운영할 단체를 성남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공간운영 단체를 선정, 지정관리제도로 위탁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 진행
- 공간운영과 관리는 지정관리제도에 의해 선정된 문화예술단체에게 위임하나, 입주 문화예술인은 성남 문화재단에서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고 지원한 지역의 문화예술인에게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한 후, 1년간 혹은 6개월간 등으로 일정기간 공간을 제공하여 많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에게 혜택과 수혜가 이뤄지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선정된 운영 주체에게는 공간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동발표회와 워크숍 등을 기획하게 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와 잠재력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무대로 활용하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도모
- 공간에 입주하는 문화예술인에게는 공간사용과 함께 공간사용에 필요한 필수장비만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운영 및 관리 단체와 협의하여 자비로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지원 대상 및 자격

- 성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모두에게 장르 구분 없이 지원 자격을 개방하여 운영
- 대규모의 단체 혹은 그룹 활동보다는 소규모 형태 또는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유망작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 추진 목적

- 성남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문화예술 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전략적으로 도입하여 향후, 성남 문화예술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장치로 활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의 급속한 출현과 확산, 멀티미디어의 발전 속도와 ICT 기술의 대중적 파급효과 등 제4차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진흥정책으로 차세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기대되는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남의 문화자원 개발 장치로 활용
- 유망한 신진 문화예술인은 물론 창조산업,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활동해 온 기성작가들 모두를 포섭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계에 역동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 역량 및 저변 확대

○ 추진 내용

- 창조산업, 콘텐츠산업,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진 및 기성예술가들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 새로운 문화예술인의 유입을 기도하는 방향에서 지원정책 수립
- 성남을 주제로 한 작품제작 혹은 창작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 성남의 문화예술 콘텐츠 향상과 발굴, 향후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자원의 발굴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정책 수립
- 직접지원제도와 간접지원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단발적인 기획사업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운영체계 속에서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 계획
-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할 창조산업, 콘텐츠산업, 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성 및 신진 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 및 발굴을 위해 창작 활동과 이와 관련된 경비를 사업 초기에 1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운영
- 1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년도에는 소수정예의 전년도 지원대상자와 신규지원자를 선발하는 체계로 운영하여 창작에서 발표, 유통까지를 포섭하며 단계적으로 확장,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성남에 정착하여 창작-발표-유통 단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유지하여 문화 예술인의 자생력과 자립 기반을 스스로 구축하고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로 도입하고 이를 위한 부가 지원제도 강구 및 모색
- 성남문화재단과 지역의 관련 산업 및 기업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하여 향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의 메세나 활동을 통해 장려하는 창작기반 구축 및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및 자격

- 나이는 물론 문화예술계의 입문 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진 및 기성 문화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은 물론 성남지역 바깥에서 활동하는 신진 문화예술인까지도 모두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으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들도 지원이 가능한 개방형 형태로 운영
- 단,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상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6) 해외 파견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 추진 목적

- 해외 탐방 및 교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지역 내 유망 문화예술인의 역량 확장과 경쟁력 제고
- 지역 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게 해외 활동 및 참가 부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의 대내외 인지도 향상과 창작의욕 고취

○ 추진 내용

- 지역 내 문화예술인에게 조건 없는 해외 탐방과 행사참가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들의 해외 네트워크 및 교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파격적인 해외 탐방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
- 단 한 번의 해외 행사 참가라도 이는 문화예술인에게 자기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지역 내 전문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발판으로 기능하는 지원제도로 운영
- 전시, 공연, 축제, 아트 페어, 심포지움, 워크숍, 국제교류 등과 같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의 직접적인 참가 및 참여를 비롯하여 단순 공간 방문, 현장탐방, 연수, 레지던스 참가 등과 같이 단기로 행해지며 적은 예산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해외 탐방 및 순찰 기회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부여
- 지역의 순수 문화예술 분야의 신진 문화예술인을 비롯하여 문화산업, 창조산업, 대중문화 등과 같은 유망 분야의 신진들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 이들의 현장체험을 통한 수준향상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
-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 연구,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 개발자, 문화예술 활동가 등과 같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진흥에 협력하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부여
- 아울러 전문 문화예술인과 더불어 시민 생활문화예술 활동과 관계하는 일반인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의 생활문화예술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

○ 지원 대상 및 자격

-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산업, 대중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성과 신진 문화예술인 전부를 대상으로 함

- 신진 문화예술가의 경우 최소 2~3년 동안 의 활동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면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실시
- 창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외에도 기획, 콘텐츠 개발, 학술연구, 문화예술교육, 문화행정 등과 같은 분야와 관계하는 이들에게 개방하여 이들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
- 전문 문화예술인과 더불어 시민 생활문화예술과 관련된 자들도 일정한 문화예술 활동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이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초청 및 행사참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초청장 또는 계약서 및 관련된 서류 등을 지원서와 함께 첨부, 제출하도록 함

○ 상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앞서서 지원사업을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구축하고 시작해야 할 연계사업이자 사전(事前)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함

1) 성남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 (가칭)

- 성남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해 가고 대내외적 환경요건의 변동에도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남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가칭)가 반드시 선행되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가칭 <성남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성남문화재단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목적과 의무, 법령과의 범위, 지원대상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범주, 사업의 범위, 재원 확충 및 재정 지원, 홍보 등에 관한 조항 등이 규정되어 수립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달리 기초지자체의 문화예술지원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내용을 전략적으로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한 조례가 되도록 치밀한 설계와 노력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성남 문화예술인 DB 구축사업

- 성남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가 등록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경력 및 활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DB를 구축, 운영
-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응모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반드시 등록하여야 지원 가능한 창구로 이용함으로써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의 창구로 활용
- 단순히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경력과 인적 사항으로 구성된 DB로 구축하기보다는 문화예술인의 작품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 업 로드하게끔 만들어 이들의 작품 및 활동정보와 경력 등 현황 파악과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구축
- 뿐만 아니라 지역 내외의 일반인에게도 자유 열람과 접근이 쉽게 만들어 성남 문화예술의 인적정보가 축적된 창고이자 대내외적인 홍보 및 네트워크 채널로 활용되는 DB로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성남 문화예술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전초기지로 기능하도록 설계, 운영
- 더불어 성남 문화예술인 DB를 구축한 이후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성남의 문화예술단체에게 공모를 통한 지정 관리로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 운영

4. 성남 문화예술지원정책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제언

- 성남형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는 체계 구축과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차원, 문화예술 분야의 인적 자원 발굴 및 육성의 차원, 창작환경 조성의 차원, 지원조직 및 체계 강화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 법·제도적 차원

- 장기적인 시점에서 성남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실현하여야 하므로, 이에 근거 마련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남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조례 또는 시행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성남의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 장려하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임
- 향후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정된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발전기금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성남문화재단 이외에도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기업 및 단체 등의 재정지원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창구 마련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임

- 문화예술 분야의 인적 자원 발굴 및 육성의 차원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이 사람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가치 및 역할, 그리고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구축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도모하여야 함
-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과 역량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유망분야의 인적 자원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필요함
-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직·간접지원 체계도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역량강화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이며 조직적으로 발전시킬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창작환경 조성의 차원

-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정확한 실태와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나, 전국적인 실태 및 현황조사에 근거하면 성남의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도 창작 및 교류공간에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교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조성하는 지원사업이 불가결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창작과 관련된 직접지원 외에도 간접지원 형태로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게 공간제공을 다양하게 강구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설계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 단순한 공간 제공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과 발표의 장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호 교류의 활성화와 확산을 기하는 문화플랫폼으로 기능할 공간조성 지원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 성남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시설을 최대로 활용, 이들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도와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더불어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에게 창작과 발표의 공간을 제공 및 발전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지원체계 조직 및 강화의 차원

- 성남형 문화예술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기 전에 앞서서 정확한 성남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과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남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의 다양한 욕구와 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성남문화재단에서 설계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남이 정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의 정의, 그리고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에 맞춰 문화예술인의 범주와 지원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하고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
- 현행 국내의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액 다건의 지원사업을 지향하기보다는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 다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투여하고 투입하는 지원방식 등을 채용하여 지원사업마다 성격에 맞는 유연한 운영형태와 지원방식을 설계하고 강구해 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방안 연구, 2013
- 성남문화재단, 성남시민의 문화참여 활동조사 결과보고서, 2015
- 성남문화재단, 성남형 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전략 연구,
- 성남시,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2014
- 성남시, 성남시 문화정책 중장기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2015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14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2016
- 문화체육관광부, 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연구, 2016
-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 예술인의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
- 부산발전연구원, 2014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발전방안, 201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201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기금 지원 실태조사 연구, 2017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200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 2014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실태조사, 2011
-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5 : 현대사회·문화·예술·교육·체육,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14
- 장찬우, 기초단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아산시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박사논문, 2017
- 전국지역문화재단협회, 전국지역문화재단 기초현황 자료집, 2013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2015, 문화체육관광부
- 손윤석,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법제 Vol.2015 No.9, 2015
- 이장민,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2010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3,
- 송경희, 한국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역할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박사 논문, 2010
- 서광, 문화술지원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8
- 양효석, 민간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0, 한국예술경영학회,
- 최진혁,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제2호, 2008
- 我が国の文化政策, 平成29年度, 文化庁, 2017
- 太下義之, 自治体文化財団に関する研究, 日本におけるアーツカウンシル的組織の現状と課題, 静岡文化芸術大学 研究紀要, Vol.17, 2016
- DEPS, 2014,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4
- Mario D'Angelo, 2000, Cultural Policies in Europe: local issues, Council of Europe.
- Ministère des Finances et des Comptes Publics, 2016., Crédits du budget général et budgets annexes des autres ministères affectés à la Culture et à la Communication, 2015-2016
- Xavier Greffe et Sylvie Pflieger, 2009, 'La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https://www.legifrance.gouv.fr>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http://philharmoniedeparis.fr/fr/activite/concert/16207-orchestres-demos>
<http://www.gouvernement.fr>
<http://www.cnap.fr>
<https://citecreation.fr/>
<http://artenreel.com/>
<http://www.cristalprod.com/>
<http://inpact-culture.org/qui-sommes-nous>
<http://quinconces-espal.com/>
<https://aar.fr/actualites-professionnelles/actu/quartier/>
 文化庁 www.bunka.go.jp
 独立行政法人 日本芸術文化振興会 www.ntj.jac.go.jp
 日本国際交流基金(Japan Foundation) www.jpf.go.jp
 公益財団法人 助成財団センター(The Japan Foundation Center) www.jfc.or.jp
 公益社団法人 企業メセナ協議会(Association for Corporate Support of the Arts) www.mecenat.or.jp
 関西・大阪21世紀協会 www.osaka21.or.jp
 公益財団法人 ユニオン造形文化財団 www.artunion.co.jp
 明治安田クオリティオブライフ文化財団 www.meijiyasuda-qol-bunka.or.jp
 立川市地域文化振興財団 www.tachikawa-chiikibunka.or.jp
 公益財団法人ユニジャパン 2017.tiff-jp.net/en/
 公益財団法人 会津若松文化振興財団 www.aizu-bunka.jp
 公益財団法人 鹿児島県文化振興財団 www.houzanhall.com
 公益財団法人 ポーラ美術振興財団 www.pola-art-foundation.jp
 ヤマハ音楽振興会 www.yamaha-mf.or.jp
 トヨタ創造空間プロジェクト
www.toyota.co.jp/jpn/sustainability/social_contribution/society_and_culture/domestic/souzou/index.htm
 東京 台東区 www.city.taito.lg.jp/
 ポーラ美術振興財団 www.pola-art-foundation.jp
 公益財団法人かけはし芸術文化振興財団 www.kakehashi-foundation.jp
 公益財団法人 アーツコミッション・ヨコハマ acy.yafjp.org
 公益財団法人 日本芸能実演家団体協議会 www.geidankyo.or.jp
 公益財団法人 五島記念文化財団 www.gotoh-mf.or.jp
 公益財団法人 花王芸術・科学財団 www.kao-foundation.or.jp
 公益財団法人 セゾン文化財団 www.saison.or.jp
 一般財団法人 地域創造 www.jafra.or.jp
 LLPまちかつ machikatsu.jp
 笠間市 www.city.kasama.lg.jp/index.html
 アーツカウンシル東京 www.artscouncil-tokyo.jp
 デザイナーズビレッジ designers-village.com

이외에 각종 포털 사이트의 기사 활용 및 국내 지자체 문화재단 사이트를 참조하였으며 사이트 주소는 생략함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추진방안 연구

발 행 인 박 명 속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 집 인 이 영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발 행 일 2017년 12월 23일
발 행 처 (재)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성남문화재단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